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2020. 2

제 출 문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최종보고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장 박 재 묵

목 차

1장. 조사 개요

1.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개요	3
1) 서베이 설문조사	3
2) 심층 인터뷰	5

2장.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1. 예술인 설문조사 결과(빈도표)	9
1) 인구사회학적 분포	9
2) 예술활동	12
3) 생활복지	16
4) 정서 건강	23
5) 예술노동과 고용형태	27
6) 예술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	34
2. 예비예술인 조사 결과(빈도표)	38
1) 인구사회학적 분포	38
2) 학업 및 진로	41
3) 생활 및 여가	44
4) 건강 및 가치관	48
5) 예술정책 및 예술인 복지정책	50
3. 집단별 차이 분석	54
1)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간의 차이	54
2) 중범위 예술분야별 분석	62
3) 기타 집단별 예술인 실태	72

3장. 심층면접 결과

1. 예술활동과 생활	79
1) 지역 문화예술계 인식 전반	79
2)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83
3)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85
2. 정책에 관한 인식과 요구	92
1)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92
2) 예술대학 교육과정	101

4장. 설문지, 면접지

1. 실태조사 설문지(예술인)	105
2. 실태조사 설문지(예비예술인)	120
3. 심층면접 질문지	129

표 차례

〈표 1〉 서베이 설문조사	3
〈표 2〉 예술인 심층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5
〈표 3〉 성별	9
〈표 4〉 연령	9
〈표 5〉 학력	9
〈표 6〉 예술활동 전체경력	10
〈표 7〉 대전지역 활동경력	10
〈표 8〉 거주지	10
〈표 9〉 주요활동지	11
〈표 10〉 전공분야	11
〈표 11〉 현재 활동 예술분야	12
〈표 12〉 주로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유형	12
〈표 13〉 주 활동분야 참여횟수/참여일수	13
〈표 14〉 소속단체	13
〈표 15〉 활동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 여부	14
〈표 1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국가공인) 취득 여부	14
〈표 17〉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여부	14
〈표 18〉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시 활동시설	15
〈표 19〉 개인 창작공간(작업실) 보유여부	15
〈표 20〉 거주자 유형	16
〈표 21〉 거주 유형	16
〈표 22〉 거주조건	16
〈표 23〉 월평균 소득	17
〈표 24〉 월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18
〈표 25〉 (2018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18
〈표 26〉 수입에 대한 만족도	18
〈표 27〉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경로	19
〈표 28〉 부채(빚) 여부	19
〈표 29〉 부채의 주된 원인	19
〈표 30〉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	20
〈표 31〉 4대보험 가입 여부	20
〈표 32〉 실업, 상해, 경력단절의 경험	21
〈표 33〉 예술활동 과정에서 상해 경험시 처리방식	21
〈표 34〉 예술활동 경력단절 이유	21

〈표 3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22
〈표 36〉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22
〈표 37〉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4점 만점)	23
〈표 38〉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	23
〈표 39〉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	24
〈표 40〉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24
〈표 41〉 현재 건강상태 (M=3.02)	25
〈표 42〉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25
〈표 43〉 건강 악화로 작업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25
〈표 44〉 병원원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여부	26
〈표 45〉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시) 이유	26
〈표 46〉 (2018년 기준) 의료기관 지출 의료비 부담 정도 (M=2.79)	26
〈표 47〉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 여부	27
〈표 48〉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27
〈표 49〉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27
〈표 50〉 예술활동 외 다른 일 경험 여부	28
〈표 51〉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이 예술활동 및 생계 주는 도움 정도	28
〈표 52〉 (2018년 기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여부	28
〈표 53〉 계약체결 미경험 이유	29
〈표 54〉 (2018년 기준)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M=2.95)	29
〈표 55〉 (2018년 기준) 체결 전체 계약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 여부	29
〈표 56〉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포함 경험 여부	30
〈표 57〉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양식 인지 여부	30
〈표 5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인지 여부	31
〈표 59〉 부당대우 경험 여부	31
〈표 60〉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32
〈표 61〉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조치를 위한 제도 여부	32
〈표 62〉 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차별 수준	33
〈표 63〉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33
〈표 6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	33
〈표 6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34
〈표 66〉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34
〈표 67〉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	35
〈표 68〉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35
〈표 69〉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36
〈표 70〉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 정책	36
〈표 71〉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	37
〈표 72〉 예술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인지 여부	37
〈표 73〉 성별	38

〈표 74〉 출생년도	38
〈표 75〉 출신고교 소재지	38
〈표 76〉 거주지	39
〈표 77〉 전공분야	39
〈표 78〉 월평균 가구소득	40
〈표 79〉 전공 관련 교과목 수강학점 (평균=13.6)	41
〈표 80〉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 여부	41
〈표 81〉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개설 필요성 (평균=4.01)	41
〈표 82〉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목적	42
〈표 83〉 향후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의 필요 정도 (5점 만점)	42
〈표 84〉 복수전공 선택 여부	43
〈표 85〉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 지속 의사	43
〈표 86〉 전공활동 비지속 또는 대전이외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이유	43
〈표 87〉 거주자 유형	44
〈표 88〉 거주 유형	44
〈표 89〉 거주 조건	45
〈표 90〉 부채(빚) 여부	45
〈표 91〉 부채의 주된 원인	45
〈표 92〉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	46
〈표 93〉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46
〈표 94〉 가장 하고싶은 여가활동	47
〈표 95〉 지난 일주일간의 정서 상태 빈도 (4점 만점)	48
〈표 96〉 현재 건강상태 (n=350, M=3.04)	48
〈표 97〉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49
〈표 98〉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학업에 차질을 받은 경험	49
〈표 99〉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 요건	49
〈표 1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50
〈표 101〉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50
〈표 102〉 예술계 내부 성폭력 문제 (5점 만점)	50
〈표 103〉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문제 (5점 만점)	51
〈표 10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 지원센터 인지 여부	51
〈표 105〉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52
〈표 106〉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5점 만점)	52
〈표 107〉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정책	53
〈표 108〉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	53
〈표 109〉 성별 차이	54
〈표 110〉 거주지별 차이	54
〈표 111〉 장르별 차이	55
〈표 112〉 거주자 유형별 차이	56

〈표 113〉 거주조건의 차이	56
〈표 114〉 부채(빚) 여부의 차이	57
〈표 115〉 소비생활 부담항목의 차이(1순위)	57
〈표 116〉 최근 1년 사이 건강악화로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58
〈표 117〉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58
〈표 118〉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59
〈표 119〉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지원 센터 인지 여부	59
〈표 120〉 예술계 성폭력 방지방안	60
〈표 121〉 젠더평등에 관한 인식도의 차이	60
〈표 122〉 대전 예술활동 여건에 관한 인식도의 차이	61
〈표 123〉 (2018년) 주 활동분야별 해당분야 참여횟수	63
〈표 124〉 (2018년) 주 활동분야별 해당분야 참여일수	63
〈표 125〉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 여부	64
〈표 126〉 활동분야별 창작공간 보유 여부	64
〈표 127〉 활동분야별 월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65
〈표 128〉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국민연금 가입 여부	65
〈표 129〉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건강보험 가입 여부	66
〈표 130〉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산재보험(예술인복지재단) 가입 여부	66
〈표 131〉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산재보험(직장) 가입 여부	67
〈표 132〉 활동분야별 예술활동 과정 시 업무상 상해 경험 여부	67
〈표 133〉 활동분야별 개인수입 만족도(예술창작활동측면)	67
〈표 134〉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68
〈표 135〉 활동분야별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68
〈표 136〉 활동분야별 예술활동 (서면)계약 체결 경험 여부	69
〈표 137〉 활동분야별(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양식 인지 여부(re-coding)	69
〈표 138〉 활동분야별 부당한 대우(상당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함) 경험 여부	69
〈표 139〉 활동분야별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의 도움 여부(생계측면)	70
〈표 140〉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계 내부 성폭력 실태 인식	70
〈표 141〉 활동분야별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실태 평가	70
〈표 142〉 (2018년) 활동분야별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신청 여부	71
〈표 143〉 (2018년) 활동분야별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신청 여부	71
〈표 144〉 (2018년) 활동분야별 민간의 문화사업 참여 여부	71
〈표 145〉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중과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	72
〈표 146〉 (2018년 기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여부	72
〈표 147〉 성별에 따른 창작공간 보유 여부	73
〈표 148〉 성별에 따른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실태 인식	73
〈표 149〉 성별에 따른 예술활동 중단 사유	74
〈표 150〉 전업여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	74
〈표 151〉 연령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	75
〈표 152〉 연령대에 따른 예술계 내 성폭력 실태 평가	75



1장. 조사 개요

1.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개요

1.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개요

1) 서베이 설문조사

-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표본설계방법 수행
 - 표본 설계 방법의 대표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계 전문가들로 연구진 구성
 - 17개 예술 분야를 균등하게 배분하려 노력

〈표 1〉 서베이 설문조사

구분	내용
조사방법	예술인: 조사표(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 *사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 섭외 후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예비예술인: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함
조사지역	대전광역시
조사대상	- (예술인)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예비예술인) 문화예술분야 관련 대학 또는 학과 졸업예정자
표본크기	유효표본 총 922명 (예술인 572명, 예비예술인 350명)
모집단 층화	장르별 비례층화
표본추출	다단계 층화추출법과 눈덩이 표집을 혼합 적용

① 조사 설계

- 조사지역과 대상 설정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접지역 거주자로서, 대전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 예비예술인
 - 전문예술인 :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예비예술인 : 문화예술분야 관련 대학 또는 학과 졸업예정자
- 예술인의 범위 : 생활예술인 배제,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 표본크기 설정 : 유효표본 총 1,000명 내외를 목표로 하였음
- 설문지 작성 : 한 달 동안 문화재단, 시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설문문항 하나하나 검토하였음. 예술인 복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시계열 자료 구축이 가능하며,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반영 가능한 설문지 설계 및 작성

② 표본 확보

- 대전 지역 내 소재한 예술단체의 협조를 얻어 예술분야별로 모집단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표본 추출
- 예술장르별 다단계 층화추출법과 눈덩이 표집을 혼합 적용

③ 설문조사 진행

- 조사원 교육
- 파일럿조사(사전테스트) :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분야별 할당하여 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과정에서 파생하는 변수들을 고려
- 본조사
 - 예술인 : 인쇄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
 - * 사전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 섭외 후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 예비예술인 :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함

④ 결과 분석

- 922명의 유효표본 확보
- 기초데이터 코딩
- 데이터 가공(데이터 클리닝 등) 후 통계프로그램에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모수 추정 후 데이터 분석
- 시정운영 방향을 따르고 정책의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해당 국, 부서, 해당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침
- 자문회의 등 지역 문화예술인 및 시민 의견 수렴
- 정부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조사결과를 통한 대전의 예술인 복지 실태를 반영하여 대전형 예술인 복지정책 제안

※ 결과표 일러두기

- 설문조사 결과표에서 문항별 응답자 합계가 예술인 572명, 예비예술인 35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중응답 질문지에 대한 합산 결과임
- 교차분석 과정에서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피하기 위해 셀의 기대빈도를 확인하였으나, 본 보고서의 표에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음
- 조사 데이터는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2) 심층 인터뷰

- 면담기간 : 2019년 10월 ~ 12월
- 면담대상 : 예술 분야별 2명 이상으로 면담 대상을 선정
 - 예술인 16명, 예비예술인 4명 면담 완료
- 면담방법 : 조사원들이 최소한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되, 응답자의 생각을 깊고 풍부하게 알 수 있도록 면접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연구 문제와 일관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태로 반 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활용
- 면담내용 :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질문
- 면담대상
 - 예술인 : 문학 4명(여2, 남2), 디자인 2명(남2), 평면 2명(여1, 남1), 만화 2명(여1, 남1), 음악 1명(여1), 영상 1명(여), 설치 1명(여), 연극 1명(여), 대중음악 1명(남), 무용 1명(여)
 - 예비예술인 : 디자인 1명(여), 문학 1명(여), 음악 1명(여), 평면 1명(남)

〈표 2〉 예술인 심층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질문 내용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 경력단절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 예술활동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경험과 관점 · 예술활동 외의 일자리를 위한 계획과 경험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 예술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감에 대한 인식 · 예술계 내부 인맥 중심 관행 경험 여부와 관련 문제 인식 · 예술분야 계약 문제 관련 경험과 계약서 개선사항
		예비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 대전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제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인식
예술대학 교육과정		예비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제언 · 예술대학 내 교외 현장 활동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지역 문화예술계 인식 전반	예술관 및 자기 인식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 예술가로서의 고민 ·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화 및 활동 지속 의지 · 예술가로서의 향후 계획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경험 및 인식 · 지역 내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험 및 관점

● ● ● 2장. ● ● ●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1. 예술인 설문조사 결과(빈도표)
2. 예비예술인 설문조사 결과(빈도표)
3. 집단별 차이 분석

1. 예술인 설문조사 결과(빈도표)

1) 인구사회학적 분포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0.5%(289명), 남성 48.4%(277명), 성별 무응답 1.0%(6명) 순임

〈표 3〉 성별

	n	%
여성	289	50.5
남성	277	48.4
무응답	6	1.0

-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4.8%(14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0대(127명 (22.2%), 50대가 17.5%(100명), 40대가 17.3%(99명), 60대가 14.7%(84명), 70세 이상이 3.5%(20명) 순임

〈표 4〉 연령

	n	%
20대	127	22.2
30대	142	24.8
40대	99	17.3
50대	100	17.5
60대	84	14.7
70세 이상	20	3.5

-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졸업 또는 재학)가 46.5%(266명)로 가장 많고, 대학원(졸업 또는 재학)이 32.7%(187명), 고졸이하가 14.6%(83명), 전문대가 6.3%(36명) 순임

〈표 5〉 학력

	n	%
고졸이하	83	14.6
전문대	36	6.3
대학교	266	46.5
대학원	187	32.7

-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한 응답자가 34.1%(195명)로 가장 많고, 경력이 10~19년인 응답자는 26.7%(153명), 5~9년 15.9%(91명), 3~4년 11.7%(67명), 1~2년 7.7%(44명), 1년 미만 3.8%(22명) 순임

〈표 6〉 예술활동 전체경력

	n	%
1년 미만	22	3.8
1~2년	44	7.7
3~4년	67	11.7
5~9년	91	15.9
10~19년	153	26.7
20년 이상	195	34.1

- 대전지역 활동경력이 20년 이상인 응답자는 28.0%(160명)로 가장 많고, 10~19년 이상인 응답자는 22.4%(128명), 5~9년 18.5%(106명), 3~4년 13.1%(75명), 1~2년 10.7%(61명), 1년 미만 7.3%(42명) 순임

〈표 7〉 대전지역 활동경력

	n	%
1년 미만	42	7.3
1~2년	61	10.7
3~4년	75	13.1
5~9년	106	18.5
10~19년 이상	128	22.4
20년 이상	160	28.0

-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30.1%(172명)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22.0%(126명), 중구 19.4%(111명), 동구 12.6%(72명), 대덕구 6.8%(39명) 순임

〈표 8〉 거주지

	n	%
동구	72	12.6
중구	111	19.4
서구	172	30.1
유성구	126	22.0
대덕구	39	6.8
인접지역	52	9.1

- 응답자의 대부분(95.8%)이 대전에서 주로 활동함

〈표 9〉 주요활동지

	n	%
대전	548	95.8
인접지역(공주/금산/계룡/논산/세종/옥천)	24	4.2

- 전공분야에 대한 응답에서는 무용 분야가 12.1%(69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학 11.0%(63명), 연극이 10.1%(58명)로 순으로 많음. 반면, 건축과 영상이 각각 0.7%(4명), 0.3%(2명)로 낮은 빈도를 보임

〈표 10〉 전공분야

	n	%
문학(출판)	63	11.0
평면(회화)	28	4.9
공예	20	3.5
영상	2	0.3
서예	45	7.9
사진	25	4.4
입체/설치	21	3.7
음악	53	9.3
국악	53	9.3
무용	69	12.1
연극	58	10.1
연예(방송/공연)	20	3.5
대중음악	38	6.6
영화	15	2.6
건축	4	0.7
만화	29	5.1
디자인	29	5.1

2) 예술활동

- 현재 활동 분야는 음악이 12.5%(100명)로 가장 높고, 이어 무용 10.1%(81명), 문학(출판) 9.6%(77명), 연극 8.7%(70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다만, 건축 0.5%(4명)과 영화 2.9%(23명)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11〉 현재 활동 예술분야

	n	%
문학(출판)	77	9.6
평면(회화)	40	5.0
공예	26	3.2
영상	34	4.2
서예	50	6.2
사진	40	5.0
입체/설치	38	4.7
음악	100	12.5
국악	63	7.9
무용	81	10.1
연극	70	8.7
연예(방송/공연)	42	5.2
대중음악	41	5.1
영화	23	2.9
건축	4	0.5
만화	29	3.6
디자인	44	5.5

- 주로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분야는 창작예술가(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작가, 감독 등)가 34.1%(258명)로 가장 많고, 이어 실연예술가(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 31.1%(237명), 예술강사(학교,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17.2%(130명) 순이며,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촬영, 음향, 조명, 의상 등)의 비율이 3.0%(23명)로 가장 낮았음

〈표 12〉 주로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유형

	n	%
창작예술가(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작가, 감독 등)	258	34.1
실연예술가(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	237	31.1
예술기획자(큐레이터, 학예사, 공연/전시기획자 등)	42	5.6
문화기획자(커뮤니티아트, 문화사업 기획자 등)	39	5.2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촬영, 음향, 조명, 의상 등)	23	3.0
예술강사(학교,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130	17.2
기타	27	3.6

- 2018년 기준으로 주 활동분야 참여횟수는 1~5회가 41.8%(239명)로 가장 많고, 이어 16회 이상이 23.3%(133명)로 많았던 반면, 참여횟수가 0회인 사람들의 비율은 7.9%(45명)로 가장 적음
- 주 활동분야 참여일수(합계)는 30일 미만이 37.8%(216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90일 이상 27.6%(158명), 30~60일 미만 18.4%(105명) 순이었고 60~90일 미만이 16.3%(93명)로 가장 적음

〈표 13〉 주 활동분야 참여횟수/참여일수

		n	%
주 활동분야 참여횟수	0회	45	7.9
	1~5회	239	41.8
	6~10회	99	17.3
	11~15회	56	9.8
	16회 이상	133	23.3
주 활동분야 참여일수(합계)	30일 미만	216	37.8
	30~60일 미만	105	18.4
	60~90일 미만	93	16.3
	90일 이상	158	27.6

- 소속단체는 문화예술전문법인/단체가 26.4%(180명)로 제일 많고, 이어서 사단법인이 23.7%(162명)로 많았고, 소속단체가 없는 경우도 21.1%(144명)로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사회적기업이 2.6%(18명)로 가장 적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 협동조합이 3.5%(24명)로 적음

〈표 14〉 소속단체

	n	%
사단법인	162	23.7
주식회사	28	4.1
문화예술전문법인/단체	180	26.4
사회적기업	18	2.6
협동조합	24	3.5
임의단체	90	13.2
소속단체 없음	144	21.1
기타	37	5.4

- 2018년 기준 활동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 여부는 있다는 응답이 46.2%(264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9.9%(171명), 지난 1년간은 없으나, 과거에 한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24.0%(137명) 순임

〈표 15〉 활동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 여부

	n	%
있음	264	46.2
지난 1년간은 없으나, 과거에 한 경험은 있음	137	24.0
없음	171	29.9

-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13.3%(76명)임

〈표 1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국가공인) 취득 여부

	n	%
예	76	13.3
아니오	496	86.7

- 2018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교육활동 종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교육활동에 종사하였다는 응답이 51.9%(297명)로 절반 이상임

〈표 17〉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여부

	n	%
예	297	51.9
아니오	275	48.1

-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시 활동시설로는 학교가 42.4%(12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평생학습기관 14.5%(43명), 문화원, 문화의 집 11.4%(34명), 공공문화향유시설 10.1%(30명), 청소년/복지기관 9.8%(29명), 유관기관 6.4%(19명) 순임

〈표 18〉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시 활동시설

	n	%
학교	126	42.4
평생학습기관	43	14.5
공공문화향유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30	10.1
청소년/복지 기관	29	9.8
문화원, 문화의 집	34	11.4
유관기관(시청자 미디어센터 등)	19	6.4
기타	16	5.4

- 개인 창작공간(작업실) 보유 여부에서는 창작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62.4%(357명)로 가장 많았으며, 있는 경우에도 거주공간에 별도공간이라고 한 응답이 23.1%(132명)로, 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공간을 보유한 경우인 14.5%(83명)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표 19〉 개인 창작공간(작업실) 보유 여부

	n	%
있음(거주공간에 별도공간)	132	23.1
있음(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공간)	83	14.5
없음	357	62.4

3) 생활복지

- 거주자 유형은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이 50.3%(288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혼자(1인 가구)가 25.0%(143명), 부모와 생활(본인+부모)하는 경우 19.6%(112명), 동료와 생활(본인+동료)이라는 응답 3.8%(22명) 순임

〈표 20〉 거주자 유형

	n	%
혼자(1인 가구)	143	25.0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	288	50.3
부모와 생활(본인+부모)	112	19.6
동료와 생활(본인+동료)	22	3.8
기타	6	1.0

- 거주 유형은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89.2%(510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이 5.9%(34명), 작업실에 부속된 방 2.3%(1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원/여관 등의 임시거처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도 각각 0.9%(5명), 0.2%(1명)임

〈표 21〉 거주 유형

	n	%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510	89.2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	34	5.9
작업실에 부속된 방	13	2.3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5	0.9
일정한 거처 없음	1	0.2
기타	8	1.4

- 거주 조건에서는 자가가 55.1%(315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임대 월세가 25.7%(147명), 임대 전세가 17.7%(101명), 기타 응답자는 1.4%(8명) 순임

〈표 22〉 거주 조건

	n	%
자가	315	55.1
임대 전세	101	17.7
임대 월세	147	25.7
기타	8	1.4

- 월평균 개인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28.8%(165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100만원 미만이 20.5%(117명), 200~300만원 미만이 19.1%(109명), 300~400만원 미만 12.6%(72명), 없음이 10.7%(61명) 순으로 많았고, 400만원 미만의 응답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함
- 월평균 가구소득(동거인과 합산기준)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이 18.0%(103명)로 가장 많으며 300~400만원 미만이 17.7%(101명), 200~300만원 미만 16.6%(95명), 400~ 500만원 미만 11.5%(66명)순임. 한편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1.9%를 차지함

〈표 23〉 월평균 소득

		n	%
월평균 개인소득	없음	61	10.7
	100만원 미만	117	20.5
	100~200만원 미만	165	28.8
	200~300만원 미만	109	19.1
	300~400만원 미만	72	12.6
	400~500만원 미만	22	3.8
	500~600만원 미만	10	1.7
	600~700만원 미만	2	0.3
	700~800만원 미만	2	0.3
	800만원 이상	8	1.4
월평균 가구소득 (동거인과 합산기준)	없음	28	4.9
	100만원 미만	50	8.7
	100~200만원 미만	103	18.0
	200~300만원 미만	95	16.6
	300~400만원 미만	101	17.7
	400~500만원 미만	66	11.5
	500~600만원 미만	41	7.2
	600~700만원 미만	35	6.1
	700~800만원 미만	21	3.7
	800만원 이상	28	4.9

- 월 개인소득에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는 30% 미만이라는 응답이 29.7%(170명)로 가장 많음. 이어서 없음이 25.9%(148명)로 많았음. 반면 100%라는 응답도 18.9%(108명)로 3순위를 보이고 있음

〈표 24〉 월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n	%
없음	148	25.9
30% 미만	170	29.7
30% 이상~50% 미만	51	8.9
50% 이상~70% 미만	42	7.3
70% 이상~100% 미만	49	8.6
100%	108	18.9
무응답	4	0.7

- 2018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에서는 작품판매료와 창작료(전시참여비, 출연료, 작곡비, 연출료, 기획비 등) 그리고 고정 급여의 비중이 각각 22.6%(129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기타 7.3%(42명), 원고료 6.3%(36명), 저작권 관련수입 4.9%(28명), 보조금 및 지원금이 4.7%(27명) 순임

〈표 25〉 (2018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n	%
작품판매료	129	22.6
원고료	36	6.3
창작료(전시참여비, 출연료, 작곡비, 연출료, 기획비 등)	129	22.6
고정 급여	129	22.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수입(인세, 로열티 포함)	28	4.9
보조금 및 지원금	27	4.7
기타	42	7.3

-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기에 수입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서 예술창작활동은 2.01점(5점 만점), 생계 및 생활(경제)측면에서는 1.91점(5점 만점)으로 예술창작활동 측면의 만족도가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한편 예술창작활동과 생계 및 생활 측면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상관계수는 0.719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표 26〉 수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예술 창작 활동 측면	2.01	0.719 ($p < 0.01$)
생계 및 생활 (경제) 측면	1.91	

-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의 충당경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32.7%(187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한 수입이 30.6%(175명),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을 통한 수입이 22.2%(127명), 부채에 의존(은행, 친구, 동료 등) 한다는 응답이 10.1%(58명), 기타 3.8%(22명) 순임

〈표 27〉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경로

	n	%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187	32.7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 일을 통한 수입	127	22.2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한 수입	175	30.6
부채에 의존(은행, 친구, 동료 등)	58	10.1
기타	22	3.8

- 부채(빚)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50.7%(290명)로 있다는 응답인 48.8%(279명)보다 1.9%(11명) 더 높음

〈표 28〉 부채(빚) 여부

	n	%
있다	279	48.8
없다	290	50.7

- 부채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주거비가 25.1%(7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활비 24.4%(68명), 교육비(본인) 15.1%(42명), 가족의 부채 11.8%(33명), 창업/사업비 11.1%(31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주거비 및 생활비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표 29〉 부채의 주된 원인

	n	%
가족의 부채	33	11.8
교육비(본인)	42	15.1
창업/사업비	31	11.1
주거비	70	25.1
의료비	5	1.8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68	24.4
차량 구입비	10	3.6
육아/자녀교육비	7	2.5

-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는 1, 2순위 합산 기준으로 42.9%(245명)의 응답자가 식료품비/외식비를 꼽았으며, 이어서 주거비가 42.5%(243명) 2순위, 교통비/차량유지비 17.9%(102명) 3순위로 생계와 밀접한 지출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를 꼽은 응답은 1.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30〉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

	1순위		2순위		합계		평가
	n	%	n	%	n	%	
식료품비/외식비	160	28.0	85	14.9	245	42.9	1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156	27.3	87	15.2	243	42.5	2
의류비/미용비	8	1.4	26	4.5	34	5.9	9
교통비/차량유지비	37	6.5	65	11.4	102	17.9	3
통신비	5	0.9	6	1.0	11	1.9	12
문화여가비	24	4.2	33	5.8	57	10.0	7
보건의료비	18	3.1	27	4.7	45	7.8	8
연료비(전기/가스 등)	5	0.9	10	1.7	15	2.6	11
경조사비	3	0.5	19	3.3	22	3.8	10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30	5.2	34	5.9	64	11.1	5
교육비/취업준비비	39	6.8	23	4.0	62	10.8	6
부채상환비	64	11.2	36	6.3	100	17.5	4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4	0.7	2	0.3	6	1.0	13

- 4대 보험 가입 여부 중 국민연금은 가입했다는 응답이 56.6%(324명)이며, 건강보험은 가입자 비율이 72.0%(412명) 고용보험은 31.5%(180명)임. 한편 산재보험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한 가입자가 10.0%(57명)인 반면 직장 산재보험은 26.2%(150명)가 가입함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비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술인들의 고용관계의 특수성 및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보여줌

〈표 31〉 4대보험 가입 여부

		n	%
4대 보험 가입여부(국민연금)	가입	324	56.6
	미가입	228	39.9
4대 보험 가입여부(건강보험)	가입	412	72.0
	미가입	140	24.5
4대 보험 가입여부(고용보험)	가입	180	31.5
	미가입	372	65.0
4대 보험 가입여부(산재보험_예술인복지재단)	가입	57	10.0
	미가입	495	86.5
4대 보험 가입여부(산재보험_직장)	가입	150	26.2
	미가입	402	70.3

- 실업급여 경험 여부에서는 18.4%(105명)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예술활동 과정 시 업무상 상해 경험 여부에서는 19.4%(111명)가 업무상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 예술활동 경력단절 여부에서 40.4%(231명)의 응답자가 예술활동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

〈표 32〉 실업, 상해, 경력단절의 경험

		n	%
실업급여 경험 여부	있음	105	18.4
	없음	460	80.4
예술활동 과정 시 업무상 상해 경험 여부	있음	111	19.4
	없음	454	79.4
예술 경력 단절 여부	있음	231	40.4
	없음	332	58.0

- (업무상 상해 경험한 응답자 중) 예술활동 과정에서 상해 경험 시 처리방식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64.9%(72명)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고용주 측 보험으로 산재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19.8%(22명), 고용주 측 개인 비용으로 보상 10.8%(12명) 순으로 응답

〈표 33〉 예술활동 과정에서 상해 경험 시 처리방식

	n	%
보상을 받지 못함(본인 비용 처리)	72	64.9
고용주측 개인 비용으로 보상	12	10.8
고용주측 보험으로 보상(산재 처리)	22	19.8
기타	5	4.5

- (예술활동 경력 단절을 경험한 응답자 중) 예술활동 경력 단절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문제가 62.8%(145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건강문제 13.4%(31명), 출산/육아 11.7%(27명), 학업 8.2%(19명) 순임

〈표 34〉 예술활동 경력 단절 이유

	n	%
학업	19	8.2
출산/육아	27	11.7
건강문제	31	13.4
생계	145	62.8
기타	9	3.9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에서는 경증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4.4%(25명),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1.0%(6명)로 5.4%(31명)의 응답자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n	%
중증 장애	6	1.0
경증 장애	25	4.4
없음	532	93.0

- 장애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과 정책들에 대한 응답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장애문화예술인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장애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 활동비 지원'이 29.0%(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장애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22.6%(7명),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19.4%(6명) 순임
-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역점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발표기회 확대'가 19.4%(6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변화, 장애문화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이 각각 16.1%(5명)로 뒤를 이음

〈표 36〉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n	%
(장애 있을 시) 장애문화예술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장애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7	22.6
	장애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3	9.7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6	19.4
	장애문화예술인 이동편의 강화	3	9.7
	장애문화예술인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의 확보	2	6.5
	장애문화예술인 공공쿼터제	1	3.2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활동비 지원	9	29.0
(장애 있을 시) 장애문화 예술인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역점지원과 정책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	5	16.1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4	12.9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	4	12.9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6	19.4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2	6.5
	장애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5	16.1
	장애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2	6.5
	문화예술활동 관련 편의 시설 및 인력 제공	3	9.7

4) 정서 건강

- 지난 1주일 간 해당 정서상태의 빈도를 묻는 문항(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에서는 전체 11개 항목의 평균이 1.77점으로 응답자들은 대체로 일주일에 가끔씩(1-2일간)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역코딩)’(2.22점), ‘잠을 설쳤다’(2.16점),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1.93점), ‘비교적 잘 지냈다(역코딩)’(1.92점) 항목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

〈표 37〉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4점 만점)

구분	평균	평가
(지난 1주일 간)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1.55	↓
(지난 1주일 간) 비교적 잘 지냈다 (역코딩)	1.92	↑
(지난 1주일 간) 상당히 우울했다	1.69	↓
(지난 1주일 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93	↑
(지난 1주일 간)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2.16	↑
(지난 1주일 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76	↓
(지난 1주일 간)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역코딩)	2.22	↑
(지난 1주일 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49	↓
(지난 1주일 간) 마음이 슬펐다	1.75	↓
(지난 1주일 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43	↓
(지난 1주일 간)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60	↓
전체 평균(11개 항목)	1.77	-

-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로는 일자리가 19.8%(190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건강과 예술활동 어려움이 각각 18.4%(176명), 노후생활 14.9%(143명) 순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자녀보육(양육)과 부모부양이 각각 2.4%(23명)과 2.7%(26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줌

〈표 38〉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

	n	%
일자리	190	19.8
자녀교육	59	6.2
건강	176	18.4
주거비	72	7.5
노후생활	143	14.9
부채상환	81	8.4
부모부양	26	2.7
자녀보육(양육)	23	2.4
예술활동 어려움	176	18.4
기타	13	1.4

- 문화예술활동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이 23.1%(234명)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 수준’이 17.2%(174명),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11.5%(116명),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 10.9%(110명) 순으로 높았음. 대체로 소득이나 처우, 인식 등 문화예술분야가 겪는 상대적인 격차가 주요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나타남

〈표 39〉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

	n	%
행정 및 서류처리 등의 업무량 과다	99	9.8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116	11.5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	234	23.1
감정노동 스트레스	100	9.9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 수준	174	17.2
업무상 재해 위험	7	0.7
성, 지역, 학력, 장애 등에 따른 차별대우	17	1.7
대인관계의 어려움	24	2.4
일/가정양립문제(자료 보육 및 교육 가사 등)	37	3.7
조직문화 적응의 어려움	13	1.3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	110	10.9
역량개발의 기회부족	69	6.8
기타	11	1.1

-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26점을 받은 반면, ‘예술가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0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예술활동 내적인 만족도는 높지만, 그에 비해 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득이나 처우, 복지 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직업으로서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두 항목 간에는 상관계수는 0.437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표 40〉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3.26	0.437 (p<0.01)
예술가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3.02	

- 현재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1%(235명)로 가장 많음. ‘보통’과 같이 중립적인 응답을 제외할 때, 부정적인 응답(28.6%)과 긍정적인 응답(28.9%)이 비슷한 수치를 보임

〈표 41〉 현재 건강상태 (M=3.02)

	n	%
매우 안 좋다	19	3.3
약간 좋지 않다	145	25.3
보통이다	235	41.1
양호하다	136	23.8
매우 양호하다	29	5.1
무응답	8	1.4

-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68.5%(392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1개 질환 있다는 응답이 21.2%(121명), 2개 질환 이상 있다는 응답이 8.9%(51명)임. 설문대상 예술인의 30%가량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음

〈표 42〉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n	%
없음	392	68.5
1개 질환 있음	121	21.2
2개 질환 이상 있음	51	8.9
무응답	8	1.4

-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작업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에서는 23.8%(136명)의 응답자가 건강 악화로 인해 작업활동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43〉 건강 악화로 작업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n	%
예	136	23.8
아니오	428	74.8
무응답	8	1.4

- 병의원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31.8%(182명)가 병원에 가지 않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44〉 병의원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여부

	n	%
있음	182	31.8
없음	382	66.8
무응답	8	1.4

-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6.3%(6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25.8%(47명),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17.6%(32명),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 17.0%(31명) 순으로 높았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시) 이유

	n	%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	47	25.8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	31	17.0
시간이 없어서	66	36.3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1	0.5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32	17.6
기타	5	2.7

- 2018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지출 의료비 부담 정도에서는 보통이 36.7%(210명)로 가장 많고, 다소 부담됨이 21.0%(120명), 매우 부담됨이 3.3%(10명)이었음. 전체적으로 24.3%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음

〈표 46〉 (2018년 기준) 의료기관 지출 의료비 부담 정도 (M=2.79)

	n	%
전혀 부담되지 않음	63	11.0
그리 부담되지 않음	152	26.6
보통	210	36.7
다소 부담됨	120	21.0
매우 부담됨	10	3.3
무응답	8	1.4

5) 예술노동과 고용형태

-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 여부에서는 전업 예술인의 경우가 53.3%(305명)로 아니라는 응답보다 10.6%(61명) 많음

〈표 47〉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 여부

	n	%
예(전업 예술인)	305	53.3
아니오(비전업 예술인)	244	42.7
무응답	23	4.0

- (전업 예술인 응답자)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리랜서(일용직 포함)가 41.0%(125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31.8%(97명), 정규직 18.4%(56명), 고용주 6.9%(21명) 순으로 나타남. 72.8%가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로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표 48〉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n	%
정규직	56	18.4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97	31.8
프리랜서(일용직 포함)	125	41.0
고용주	21	6.9
기타	6	2.0

-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에서는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이 35.7%(87명)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이 33.2%(81명)로 높음. 대체로 예술활동의 저소득, 불안정성이 다른 일자리를 갖게 한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표 49〉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n	%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81	33.2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87	35.7
예술활동에서의 고용불안정	28	11.5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8	3.3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	30	12.3
기타	10	4.1

- 예술활동 외 다른 일 경험 여부에서는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이 53.0%(303명)인 반면,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한 직종도 43.0%(246명)로 조사되었음

〈표 50〉 예술활동 외 다른 일 경험여부

구분	n	%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	303	53.0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 직종	246	43.0
무응답	23	4.0

-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이 예술활동 및 생계에 주는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예술활동의 경우 2.76점, 생계의 경우 3.13점으로 상대적으로 생계에 주는 도움의 평가가 높으며, 두 항목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며, 상관계수는 0.363임

〈표 51〉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이 예술활동 및 생계 주는 도움 정도

	평균	상관계수
예술활동에 주는 도움 정도	2.76	0.363 (p<0.01)
생계에 주는 도움 정도	3.13	

- 2018년 기준 예술활동 시 (서면)계약체결 경험 여부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51.6%(295명)로 있다는 응답 44.4%(254명)보다 더 높음

〈표 52〉 (2018년 기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여부

구분	n	%
없음	295	51.6
있음	254	44.4
무응답	23	4.0

- 계약체결 경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나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4.7%(132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계약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0.3%(60명), 기타 20.0%(59명), 계약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분위기상 계약 불가능 11.2%(33명), 계약을 요구하지만 대표나 업체가 기피해 불가능 3.7%(11명)임

- 14.9%(44명)의 응답자가 계약의 필요성을 인식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

〈표 53〉 계약체결 미경험 이유

구분	n	%
나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계약 불필요	132	44.7
계약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계약 안 함	60	20.3
계약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분위기상 계약 불가능	33	11.2
계약을 요구하지만 대표나 업체가 기피해 불가능	11	3.7
기타	59	20.0

- 2018년 기준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55.4%(317명)로 있다는 응답 44.6%(255명)보다 10.8%(62명) 더 많음

〈표 54〉 (2018년 기준)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M=2.95)

구분	n	%
있음	255	44.6
없음	317	55.4

- 2018년 기준 전체 계약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5.9% (15명)가 부적절/당한 계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55〉 (2018년 기준) 체결 전체 계약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 여부

구분	n	%
있음	15	5.9
없음	240	94.1

- 계약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를 포함한 경험 여부의 경우, ‘구입의사가 없는 공연/전시티켓, 도서, 음반 등 구입 강요 2.0%(5명), 금전이나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0.8%(2명), 경쟁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 0.8%(2명), 부당한 수익배분/대가 지급 강요 2.4%(6명)임

〈표 56〉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포함 경험 여부

		n	%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 강요	있다	5	2.0
	없다	236	92.5
	모름	12	4.7
기획업자가 금전이나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있다	2	0.8
	없다	239	93.7
	모름	12	4.7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	있다	2	0.8
	없다	239	93.7
	모름	12	4.7
부당한 수익배분/대가 지급 강요	있다	6	2.4
	없다	236	92.5
	모름	11	4.3

-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양식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8.1%(218명)로 제일 많고, 이어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5.5%(203명)로 뒤를 이었음. 전체적으로 73.6%(421명)의 응답자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표 57〉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양식 인지 여부

구분	n	%
전혀 모른다	203	35.5
잘 알지 못한다	218	38.1
잘 알고 있다	102	17.8
매우 잘 알고 있다	22	3.8
무응답	27	4.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인지 여부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0.9%(234명),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0.7%(233명)로 가장 많았음. 전체적으로 불공정행위신고 및 상담센터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표 5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인지 여부

	n	%
전혀 모른다	233	40.7
잘 알지 못한다	234	40.9
잘 알고 있다	73	12.8
매우 잘 알고 있다	5	0.9
무응답	27	4.7

-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정한 수익 배분’이 24.3%(13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금 지급이 늦어짐’이 20.8%(119명),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16.1%(92명), ‘예술창작 비용을 불리하게 공제’ 14.3%(82명), ‘비인격적인 처우’ 11.5%(66명),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6.1%(66명)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부당대우 경험이 높은 편

〈표 59〉 부당대우 경험 여부

		n	%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함	있다	139	24.3
	없다	322	56.3
	모름	84	14.7
	무응답	27	4.7
상당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함	있다	119	20.8
	없다	364	63.6
	모름	62	10.8
	무응답	27	4.7
예술창작 비용을 현저히 불리하게 공제해서 받음	있다	82	14.3
	없다	359	62.8
	모름	104	18.2
	무응답	27	4.7
예술 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 받음	있다	92	16.1
	없다	376	65.7
	모름	77	13.5
	무응답	27	4.7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당함	있다	35	6.1
	없다	408	71.3
	모름	102	17.8
	무응답	27	4.7
비인격적이며 모독적인 처우를 받음	있다	66	11.5
	없다	419	73.3
	모름	60	10.5
	무응답	27	4.7

-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에서는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이 37.4%(214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는 응답이 31.6%(181명), ‘바로 그만둔다’ 13.3% 순으로 높았던 반면,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0.8%(65명)에 불과함

〈표 60〉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n	%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	181	31.6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	214	37.4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다	76	13.3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	62	10.8
기타	16	2.8
무응답	23	4.0

- 국내 예술계가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제도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5.1%(152명)로 이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0%(91명)로 많음. 긍정적인 응답은 2.4%(8명)에 불과함

〈표 61〉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조치를 위한 제도 여부

		n	%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M=1.96) n=337	전혀 그렇지 않다	91	2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2	45.1
	보통이다	63	18.7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	8	2.4
	무응답	23	6.8

-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및 여성차별의 수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성폭력의 수준에 대해서 묻는 항목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26점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예술교육이나 연습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35점,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32점,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의 성폭력’ 2.12점으로 같은 지위보다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평균 이상임
- 여성차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문항들의 평균은 2.24점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연수기회의 기회 차별’ 2.27점, ‘예술문화산업/조직의 채용 차별’ 2.31점, ‘창작활동 지원 수혜 차별’ 2.19점,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배분 차별’ 2.19점으로 채용에서의 차별을 묻는 항목의 점수가 창작활동지원 및 창작물 판매에서 오는 차별 여부를 묻는 항목보다 높았으며, 이는 평균 이상임

〈표 62〉 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차별 수준

		평균	평가
성폭력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35	↑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32	↑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12	↓
	전체 평균(3개 항목)	2.26	-
		평균	평가
여성차별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27	↑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2.31	↑
	창작활동 지원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2.19	↓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2.19	↓
	전체 평균(4개 항목)	2.24	-

-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가 36.0%(206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가 27.8%(159명),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17.5%(100명),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2.8%(73명) 순임

〈표 63〉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n	%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159	27.8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73	12.8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206	36.0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100	17.5
기타	11	1.9
무응답	23	4.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0.0%(286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5.1%(201명)로 많은 반면,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0.1%(58명)와 0.7%(4명)로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표 6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

	n	%
전혀 모른다	201	35.1
잘 알지 못한다	286	50.0
잘 알고 있다	58	10.1
매우 잘 알고 있다	4	0.7
무응답	23	4.0

6) 예술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

-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에서는 신청을 한 경우가 39.7%(227명)인 반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67.1%(384명)이었음

〈표 6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n	%
예	157	27.4
아니오	384	67.1
무응답	31	5.4

-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5.6%(2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11.7%(45명),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7.8%(45명),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6.8%(26명),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5.5%(21명) 순으로 사실상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12.3%에 불과함

〈표 66〉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n	%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21	5.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252	65.6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30	7.8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45	11.7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26	6.8
기타	10	2.6

- 2018년 기준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항목 중에는 예술인패스 카드발급의 신청 및 수혜비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공의 창작비용지원사업의 신청 및 수혜 경험의 14.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공공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13.3%, 민간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8.4%, 공공창작공간지원사업 4.5%, 예술인사회보험지원 3.0%, 민간의 창작비용지원사업 2.6%, 예술인산재보험 2.3%, 민간창작공간지원사업 2.1% 순이었음
- 전체적으로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수혜율이 높지 않으며,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사회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신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67〉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

		n	%
공공창작비용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음	84	14.7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47	8.2
	신청 안함	410	71.7
민간창작비용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음	15	2.6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41	7.2
	신청 안함	485	84.8
공공창작공간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음	26	4.5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28	4.9
	신청 안함	487	85.1
민간창작공간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음	12	2.1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22	3.8
	신청 안함	507	88.6
공공문화사업 (축제, 공공예술)참여	신청하여 지원받음	76	13.3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25	4.4
	신청 안함	440	76.9
민간문화사업 (축제, 공공예술)참여	신청하여 지원받음	48	8.4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28	4.9
	신청 안함	465	81.3
예술인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음	17	3.0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11	1.9
	신청 안함	513	89.7
예술인산재보험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음	13	2.3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10	1.7
	신청 안함	518	90.6
예술인 패스카드 발급	신청하여 지원받음	94	16.4
	신청했으나 지원 못 받음	13	2.3
	신청 안함	434	75.9

-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몰라서’가 51.7%(296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13.6%(78명),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11.2%(64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10.1%(58명),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4.4%(25명) 순임

〈표 68〉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n	%
지원제도를 몰라서	296	51.7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25	4.4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64	11.2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58	10.1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78	13.6
기타	20	3.5
무응답	31	5.4

-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40점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가 2.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와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가 각각 2.53점,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2.42점 순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2.33점,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2.31점,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이루어짐

〈표 69〉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평균	평가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2.53	↑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2.53	↑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2.55	↑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2.40	-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2.42	↑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2.31	↓
예술정책 결정 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2.32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2.25	↓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2.33	↓
전체 평균(9개 항목)	2.40	-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대전시가 펼쳐야 할 역점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이 23.7%(236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22.8%(227명),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조례와 제도정비 17.2%(171명),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10.8%(107명),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각각 6.9% 순이고, 예술진흥 관련 문화재단의 기능 확대가 4.0%(40명)로 가장 낮음

〈표 70〉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 정책

	n	%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조례와 제도 정비	171	17.2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107	10.8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	236	23.7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227	22.8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69	6.9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69	6.9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69	6.9
예술진흥 관련 문화재단의 기능 확대	40	4.0
기타	7	0.7

-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에 대한 문항에서는 1순위 기준으로 생활안정지원이 42.1%(241명)로 요구가 많았으며, 이어서 예술창작지원 24.3%(139명) 순으로 높음

〈표 71〉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평균	순위
	n	%	n	%	n	%	n	%	n	%	n	%		
생활안정지원	241	42.1	101	17.7	57	10.0	47	8.2	47	8.2	34	5.9	2.668	1
직업역량강화	54	9.4	110	19.2	128	22.4	96	16.8	94	16.4	41	7.2	3.274	2
예술환경개선	50	8.7	76	13.3	117	20.5	109	19.1	109	19.1	60	10.5	3.316	3
사회보험료지원	38	6.6	72	12.6	85	14.9	136	23.8	115	20.1	77	13.5	3.516	4
예술창작지원	139	24.3	114	19.9	83	14.5	71	12.4	95	16.6	24	4.2	3.566	5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14	2.4	52	9.1	52	9.1	60	10.5	59	10.3	283	49.5	4.667	6
무응답	36	6.3	47	8.2	50	8.7	53	9.3	53	9.3	53	9.3	-	-

* 생활안정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보육 지원 등

*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 이용권 지원 등

- 예술활동지원사업 수행 기관 인지 여부에서는 대전문화재단이 23.7%(452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 대전예술의전당이 14.0%(267명), 대전시립미술관 11.9%(227명), 대전시립연정국악원 9.5%(182명), 대전평생교육진흥원 9.5%(181명), 이응노미술관 9.2%(175명) 순으로 높음. 반면 대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는 2.5%(48명)로 가장 낮음
- 예술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전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며, 예술전담기관이 아닌 경우는 그 수치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72〉 예술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인지 여부

	n	%
대전문화재단	452	23.7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48	2.5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미디어재단)	89	4.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82	4.3
대전경제통상진흥원	57	3.0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81	9.5
대전마케팅공사	80	4.2
대전복지재단	68	3.6
대전예술의전당	267	14.0
대전시립미술관	227	11.9
이응노미술관	175	9.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182	9.5
기타	2	0.1

2. 예비예술인 조사 결과(빈도표)

1) 인구사회학적 분포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67.7%(237명)로 남성 29.1%(102명)보다 많음

〈표 73〉 성별

	n	%
여성	237	67.7
남성	102	29.1
무응답	11	3.1

- 응답자의 대부분(90.6%)이 1990년대생이며, 2000년대생이 29명(8.3%), 1970년대생이 3명(0.9%), 1980년대생이 1명(0.3%) 순임

〈표 74〉 출생년도

	n	%
1970년대생	3	0.9
1980년대생	1	0.3
1990년대생	317	90.6
2000년대생	29	8.3

- 응답자의 55.4%(194명)의 출신고교 소재지가 대전이나 인접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며, 대전은 37.3%(132명)로 나타나고, 인접지역 6.9%(24명)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75〉 출신고교 소재지

	n	%
대전	132	37.7
인접지역(공주/금산/계룡/논산/세종/옥천)	24	6.9
그 외 지역	194	55.4

- 거주지가 서구인 응답자가 32.6%(11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성구 30.3%(106명), 동구 12.9%(45명), 대덕구 11.1%(39명) 순이며, 중구는 5.4%(19명)로 가장 적음

〈표 76〉 거주지

	n	%
동구	45	12.9
중구	19	5.4
서구	114	32.6
유성구	106	30.3
대덕구	39	11.1
인접지역	27	7.7

- 전공분야가 디자인인 응답자 비율이 22.6%(79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평면(회화)이 18.6%(65명), 만화가 12.9%(45명)으로 많음. 반면, 영상은 0.3%(1명)으로 가장 비율이 적고, 이어 대중음악 1.1%(4명), 연극 1.7%(6명), 문학(출판) 2.6%(9명)로 적음

〈표 77〉 전공분야

	n	%
문학(출판)	9	2.6
평면(회화)	65	18.6
공예	12	3.4
영상	1	0.3
서예	15	4.3
사진	18	5.1
입체/설치	10	2.9
음악	23	6.6
국악	11	3.1
무용	11	3.1
연극	6	1.7
대중음악	4	1.1
영화	24	6.9
건축	17	4.9
만화	45	12.9
디자인	79	22.6
합계(N)	350	100.0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4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27.7%(97명)로 가장 많고, 이어 가구소득이 없는 응답자가 25.7%(90명)로 많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8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7.4%(26명)로 가장 적고, 이어 800만원 이상이 8.3%(29명)로 적음

〈표 78〉 월평균 가구소득

	n	%
없음	90	25.7
200만원 미만	48	13.7
200~400만원 미만	97	27.7
400~600만원 미만	50	14.3
600~800만원 미만	26	7.4
800만원 이상	29	8.3
무응답	10	2.9

2) 학업 및 진로

- 전공 관련 교과목 수강학점에서는 10~19학점 미만이 78.0%(273명)로 가장 많음. 다만, 19학점 이상에서는 8.6%(30명)로 가장 적음

〈표 79〉 전공 관련 교과목 수강학점 (평균=13.6)

	n	%
10학점 미만	47	13.4
10~19학점 미만	273	78.0
19학점 이상	30	8.6

-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수강 여부에서는 수강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4.3%(190명)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응답보다 8.6%(30명) 더 많음

〈표 80〉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수강 여부

	n	%
예	190	54.3
아니오	160	45.7

-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43.7%(153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31.1%(109명)로 많음.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3%(1명)로 가장 적음

〈표 81〉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개설 필요성 (평균=4.01)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5	4.3
보통이다	72	20.6
약간 필요하다	153	43.7
매우 필요하다	109	31.1

-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수강목적은 ‘향후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라는 응답이 43.7%(153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향후 예술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3.1%(116명), ‘기본적인 소양 강화에 도움이 되어서’ 21.7%(76명)로 ‘주변에서 많이 수강하는 추세여서’라는 응답은 0.9%(3명) 순임

〈표 82〉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목적

	n	%
향후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153	43.7
향후 예술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16	33.1
기본적인 소양 강화에 도움이 되어서	76	21.7
주변에서 많이 수강하는 추세여서	3	0.9
기타	2	0.6

- 향후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의 필요 정도에서는 평균적으로 3.82점을 받음. 그중에서도 인턴십(기획/제작 등)이 4.16점으로 가장 높으며 마케팅/홍보가 4.05점으로 다음으로 높음. 이 외에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는 공연, 전시 기획/제작, 문화정책, 예술공간 경영이 있음. 반면 축제 기획에서는 3.48점으로 가장 낮으며 재무/회계에서는 3.51점으로 다음으로 낮음. 이 외에도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는 예술경영 이론/개론, 조직 운영/관리, 실무 문서 작성이 있음

〈표 83〉 향후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의 필요 정도 (5점 만점)

	평균	평가
예술경영 이론/개론	3.78	↓
공연, 전시 기획/제작	3.95	↑
축제 기획	3.48	↓
조직 운영/관리	3.76	↓
마케팅/홍보	4.05	↑
문화정책	3.83	↑
예술공간 경영	3.97	↑
재무/회계	3.51	↓
실무 문서 작성	3.69	↓
인턴십(기획/제작 등)	4.16	↑
전체 평균(10개 항목)	3.82	-

- 복수전공 선택 여부에서는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93.7%로 대다수였음

〈표 84〉 복수전공 선택 여부

	n	%
예	22	6.3
아니오	328	93.7

-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 지속 의사에서는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해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54.0%(189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대전 지역에 남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24.3%(85명)로 많음. 반면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5.1%(18명)로 가장 적음

〈표 85〉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 지속 의사

	n	%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	18	5.1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해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189	54.0
대전 지역에 남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85	24.3
잘 모르겠다	58	16.6

- 전공활동 지속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38.9%(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졸업 이후 진로가 불투명해서’ 27.8%(5명), ‘경제적 부담’ 22.2%(4명) 순임
- 졸업 이후 대전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전공활동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예술창작 인프라 격차’가 50.8%(96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출신지나 고향이 달라 이질감 느낌’ 15.9%(30명),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부족’ 12.7%(24명), 예술적 성장 가능성이 낮아서 12.2%(23명) 순으로 높음

〈표 86〉 전공활동 비지속 또는 대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이유

		n	%
예술활동 지속의사가 없는 이유	경제적 부담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4	22.2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1	5.6
	전공 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7	38.9
	졸업 이후 진로가 불투명해서	5	27.8
	기타	1	5.6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활동하려는 이유	예술창작 인프라의 격차(시설, 프로그램 등)가 커 보여서	96	50.8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해 보여서	24	12.7
	예술적 성장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23	12.2
	경제적 처우가 다른 곳에 비해 낮아 보여서	13	6.9
	출신지나 고향이 달라 이질감이 느껴져서	30	15.9
	기타	3	1.6

3) 생활 및 여가

- 거주자 유형에서는 혼자(1인 가구)라는 응답이 46.9%(164명)로 가장 많으며 부모와 생활(본인+부모)이라는 응답이 39.4%(138명), 동료와의 생활 9.1%(32명),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 3.1%(11명) 순으로 많으며, 대체로 부모와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표 87〉 거주자 유형

	n	%
혼자(1인 가구)	164	46.9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	11	3.1
부모와 생활(본인+부모)	138	39.4
동료와 생활(본인+동료)	32	9.1
기타	5	1.4

- 거주 유형에서는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73.7%(258명)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동체 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이 13.4%(47명),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10.0%(35명), 일정한 거처 없음 1.1%(4명), 작업실에 부속된 방 0.9%(3명) 순으로 많음

〈표 88〉 거주 유형

	n	%
가정집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258	73.7
공동체 주택 (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	47	13.4
작업실에 부속된 방	3	0.9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35	10.0
일정한 거처 없음	4	1.1
기타	3	0.9

- 거주 조건에서는 임대 월세가 54.6%(191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자가가 28.3%(99명), 임대 전세가 15.4%(54명) 순으로 많음

〈표 89〉 거주 조건

	n	%
자가	99	28.3
임대 전세	54	15.4
임대 월세	191	54.6
기타	6	1.7

- 부채(빚) 여부에서는 부채가 있는 경우가 34.0%(119명)임

〈표 90〉 부채(빚) 여부

	n	%
있다	119	34.0
없다	231	66.0

- 부채(빚)의 주된 원인으로는 학자금(45.2%(76명))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가족의 부채 19.6%(33명), 생활비 14.9%(25명), 주거비 6.0%(10명), 예술활동비(작품창작비용) 4.2%(7명) 순으로 높음
- 학생이라는 특성으로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예술인의 부채요인과 구별되는 지점

〈표 91〉 부채의 주된 원인

	n	%
학자금	76	45.2
가족의 부채	33	19.6
예비 창업/사업비	5	3.0
주거비	10	6.0
의료비	2	1.2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25	14.9
차량 구입비	3	1.8
교육/취업준비비(학자금 제외)	6	3.6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7	4.2

-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1+2순위)에서는 식료품비/외식비가 총 66.6%(233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가 34.3%(120명), 예술활동비 27.5%(96명)으로 높았음. 이 중 예술활동비의 수치는 예술인들의 수치(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줌

〈표 92〉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

	1순위		2순위		합계		평가
	n	%	n	%	n	%	
식료품비/외식비	162	46.3	71	20.3	233	66.6	1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70	20.0	50	14.3	120	34.3	2
의류비/미용비	16	4.6	30	8.6	46	13.1	5
교통비/차량유지비	15	4.3	43	12.3	58	16.6	4
통신비	3	0.9	7	2.0	10	2.9	9
문화여가비	9	2.6	28	8.0	37	10.6	7
보건의료비	2	0.6	4	1.1	6	1.7	11
연료비(전기/가스 등)	0	0.0	1	0.3	1	0.3	12
경조사비	0	0.0	1	0.3	1	0.3	12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13	3.7	31	8.9	44	12.6	6
교육비/취업준비비	17	4.9	11	3.1	28	8.0	8
부채상환비	6	1.7	1	0.3	7	2.0	10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37	10.6	59	16.9	96	27.4	3
무응답	0	0.0	13	3.7	13	3.7	-

-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1+2순위)에서는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이 총 37.7% (132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인터넷이 28.0%(98명)로 게임 24.9%(87명), 휴식 23.7%(83명), 친구만남 20.9%(73명)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표 93〉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1순위		2순위		합계		평가
	n	%	n	%	n	%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95	27.1	37	10.6	132	37.7	1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등)	23	6.6	40	11.4	63	18.0	6
스포츠 관람(야구, 배구 경기 관람 등)	7	2.0	9	2.6	16	4.6	12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등)	7	2.0	8	2.3	15	4.3	13
관광 및 여행	18	5.1	9	2.6	27	7.7	8
인터넷	67	19.1	31	8.9	98	28.0	2
TV시청	10	2.9	13	3.7	23	6.6	9
게임	42	12.0	45	12.9	87	24.9	3
쇼핑	11	3.1	21	6.0	32	9.1	7
음주	9	2.6	12	3.4	21	6.0	10
친구만남	21	6.0	52	14.9	73	20.9	5
산책 및 걷기	3	0.9	16	4.6	19	5.4	11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 않음)	35	10.0	48	13.7	83	23.7	4
기타	2	0.6	2	0.6	4	1.1	14
무응답	0	0.0	7	2.0	7	2.0	-

-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1+2순위)에서는 관광 및 여행이 55.1%(193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이 48.3%(169명). 문화예술 참여 32.9%(115명), 스포츠 참여 14.0%(49명), 휴식 10.3%(36명)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항목에서 하위에 위치하던 여행, 스포츠 참여 등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위에 있던 인터넷과 게임이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과 이상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요소임

〈표 94〉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		2순위		합계		평가
	n	%	n	%	n	%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114	32.6	55	15.7	169	48.3	2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등)	49	14.0	66	18.9	115	32.9	3
스포츠 관람(야구, 배구 경기 관람 등)	9	2.6	9	2.6	18	5.1	9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등)	21	6.0	28	8.0	49	14.0	4
관광 및 여행	117	33.4	76	21.7	193	55.1	1
인터넷	1	0.3	1	0.3	2	0.6	12
TV시청	0	0.0	1	0.3	1	0.3	13
게임	12	3.4	7	2.0	19	5.4	8
음주	0	0.0	34	9.7	34	9.7	6
쇼핑	13	3.7	4	1.1	17	4.9	10
친구만남	5	1.4	16	4.6	21	6.0	7
산책 및 걷기	1	0.3	13	3.7	14	4.0	11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 않음)	7	2.0	29	8.3	36	10.3	5
기타	1	0.3	0	0.0	1	0.3	13
무응답	0	0.0	11	3.1	11	3.1	-

4) 건강 및 가치관

- 지난 일주일간 다음과 같은 상태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 점수는 1.98점이며, 그 중에서도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역코딩)’가 2.39점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2.25점, ‘잠을 설쳤다’ 2.21점,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11점, ‘상당히 우울했다’ 2.09점, ‘비교적 잘 지냈다(역코딩)’ 2.02점 순으로 높으며(부정적),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반면 ‘마음이 슬펐다’ 1.96점,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1.87점,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78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56점,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55점으로 순으로 점수가 낮았음(긍정적)

〈표 95〉 지난 일주일간의 정서 상태 빈도 (4점 만점)

	평균	평가
(지난 1주일 간)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1.87	↓
(지난 1주일 간) 비교적 잘 지냈다 (역코딩)	2.02	↑
(지난 1주일 간) 상당히 우울했다	2.09	↑
(지난 1주일 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2.25	↑
(지난 1주일 간)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2.21	↑
(지난 1주일 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78	↓
(지난 1주일 간)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역코딩)	2.39	↑
(지난 1주일 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55	↓
(지난 1주일 간) 마음이 슬펐다	1.96	↓
(지난 1주일 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56	↓
(지난 1주일 간)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11	↑
전체 평균(11개 항목)	1.98	-

-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4.6%(121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약간 좋지 않다는 의견이 29.1%(102명)로 많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32.9%였고, 부정적인 응답이 32.5%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율임

〈표 96〉 현재 건강상태 (n=350, M=3.04)

	n	%
매우 안좋다	12	3.4
약간 좋지 않다	102	29.1
보통이다	121	34.6
양호하다	91	26.0
매우 양호하다	24	6.9

-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83.1% (293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1개 질환 13.7%(48명), 2개 질환 이상 3.1%(11명) 순임

〈표 97〉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n	%
없음	291	83.1
1개 질환 있음	48	13.7
2개 질환 이상 있음	11	3.1

-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학업에 차질을 받은 경험에서는 32.6%가 건강 악화로 인해 학업에 차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98〉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학업에 차질을 받은 경험

	n	%
예	114	32.6
아니오	236	67.4

-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 요건에서는 재산/경제력이 32.8%(225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 건강이 16.9%(116명)로 많음. 반면 기타 응답 0.1%(1명)를 제외하면, 사회분위가 1.3%(9명)로 가장 낮았음

〈표 99〉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 요건

	n	%
재산/경제력	225	32.8
화목한 가정	98	14.3
자아실현	43	6.3
건강	116	16.9
긍정적 태도	54	7.9
종교생활	11	1.6
지역/직장	20	2.9
연인(이성관계 등)	15	2.2
친구/대인 관계	47	6.9
꿈/목표 의식	46	6.7
사회분위기	9	1.3
기타	1	0.1

5) 예술정책 및 예술인 복지정책

-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경우는 4.3%(15명)에 불과함

〈표 1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n	%
예	15	4.3
아니오	335	95.7

-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으로는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응답이 42.6%(149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 28.6%(100명),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 16.0%(56명)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다’ 12.0%(42명) 순임

〈표 101〉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n	%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	100	28.6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	149	42.6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다	42	12.0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	56	16.0
기타	3	0.9

- 예술계 내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 평균이 2.50점, 여성 차별이 2.59점으로 비교적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음
- 성폭력 관련 문항 중에서는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항이 2.60점, ‘예술교육이나 연습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항이 2.58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는 문항이 2.3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표 102〉 예술계 내부 성폭력 문제 (5점 만점)

		평균	평가
성 폭 력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58	↑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60	↑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31	↓
	전체 평균(3개 항목)	2.50	-

- 예술계 내 여성차별에 대한 문항에서는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차별’ 2.69점,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의 차별’ 문항의 평균이 2.65점으로 전체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반면,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의 차별’ 2.52점, ‘창작활동 지원(비용/공간, 발표기회 등) 수혜에서의 차별’의 점수는 2.4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103〉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문제(5점 만점)

		평균	평가
여성차별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65	↑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2.69	↑
	창작활동 지원(비용/공간, 발표기회 등)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2.49	↓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2.52	↓
	전체 평균(4개 항목)	2.59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 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의견이 52.3%(183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42.0%(147명)로 많음. 성폭력 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응답은 총 94.3%(330명)임. 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은 0.9%(3명)에 불과함

〈표 10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 지원센터 인지 여부

	n	%
전혀 모른다	183	52.3
잘 알지 못한다	147	42.0
잘 알고 있다	17	4.9
매우 잘 알고 있다	3	0.9

-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에서는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가 56.6% (198명)로 가장 많으며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가 25.4%(89명)로 다음으로 많음. 다만, 기타 의견 0.6%(2명)를 제외하면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8.0%(28명)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음

〈표 105〉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n	%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89	25.4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8	8.0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198	56.6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33	9.4
기타	2	0.6

-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에서는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2.51점을 받음. 그중에서도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는 문항이 2.63점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는 문항이 2.61점으로 높음. 다만,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는 문항에서는 2.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표 106〉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5점 만점)

	평균	평가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2.61	↑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2.57	↑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2.63	↑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2.49	↓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2.45	↓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2.51	-
예술정책 결정 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2.54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2.39	↓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2.38	↓
전체 평균(9개 항목)	2.51	-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가 펼쳐야 할 역점정책으로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이 26.9%(169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25.2%(158명),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13.4(84명),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조례와 제도 정비 13.1%(82명),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11.6%(73명),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가 7.6%(48명)로 순임

〈표 107〉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정책

	n	%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조례와 제도 정비	82	13.1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84	13.4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	169	26.9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158	25.2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48	7.6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73	11.6
기타	14	2.2

-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에서는 생활 안정지원이 평균 2.489로 가장 높고 이어 직업역량 강화가 3.309로 높음. 다만,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은 4.686으로 가장 낮으며 예술창작지원은 3.651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108〉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평균	평가
	n	%	n	%	n	%	n	%	n	%	n	%		
생활안정지원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164	46.9	57	16.3	39	11.1	45	12.9	27	7.7	18	5.1	2.489	1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49	14.0	79	22.6	58	16.6	65	18.6	66	18.9	33	9.4	3.309	2
사회보험료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17	4.9	45	12.9	59	16.9	87	24.9	89	25.4	53	15.1	3.391	3
예술환경개선 (예술인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36	10.3	58	16.6	91	26	66	18.9	60	17.1	39	11.1	3.474	4
예술창작지원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71	20.3	77	22.0	66	18.9	56	16	65	18.6	15	4.3	3.651	5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 처리 등)	13	3.7	34	9.7	37	10.6	31	8.9	43	12.3	192	54.9	4.686	6

3. 집단별 차이 분석

1)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간의 차이

(1) 인구학적 변수의 집단적 차이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간에 성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상대적으로 예비 예술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예술인에 비해 높은 반면, 예술인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음

〈표 109〉 성별 차이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x^2	p값
여성	237명(67.7%)	289명(50.5%)	36.053	0.000***
	+	-		
남성	102명(29.1%)	277명(48.4%)		
	-	+		
무응답	11명(3.1%)	6명(1.0%)		
	+	-		

주: *p<.05, **p<.01, ***p<.001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예비예술인들은 유성구나 대덕구 등 대학들이 위치한 곳에서 상대적 빈도가 높았던 반면, 예술인들은 중구에서 상대적 빈도가 높음

〈표 110〉 거주지별 차이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x^2	p값
동구	45(12.9)	72(12.6)	41.700	0.000***
	n.s	n.s		
중구	19(5.4)	111(19.4)		
	-	+		
서구	114(32.6)	172(30.1)		
	n.s	n.s		
유성구	106(30.3)	126(22.0)		
	+	-		
대덕구	39(11.1)	39(6.8)		
	+	-		
인접지역	27(7.7)	52(9.1)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장르별 차이를 살펴보면, 예비예술인의 경우 평면(회화), 건축, 만화, 디자인 장르에서 예술인보다 비중이 높은 반면, 예술인의 경우 문학(출판), 서예, 국악, 무용, 연극, 연예, 대중음악에서 비중이 높음. 두 집단 간의 장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

〈표 111〉 장르별 차이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χ^2	p값
문학(출판)	9(2.6)	63(11.)	246.388	0.000***
	-	+		
평면(회화)	65(18.6)	28(4.9)		
	+	-		
공예	12(3.4)	20(3.5)		
	n.s	n.s		
영상	1(0.3)	2(0.3)		
	n.s	n.s		
서예	15(4.3)	45(7.9)		
	-	+		
사진	18(5.1)	25(4.4)		
	n.s	n.s		
입체/설치	10(2.9)	21(3.7)		
	n.s	n.s		
음악	23(6.6)	53(9.3)		
	n.s	n.s		
국악	11(3.1)	53(9.3)		
	-	+		
무용	11(3.1)	69(12.1)		
	-	+		
연극	6(1.7)	58(10.1)		
	-	+		
연예(방송/공연)	0(0.0)	20(3.5)		
	-	+		
대중음악	4(1.1)	38(6.6)		
	-	+		
영화	24(6.9)	15(2.6)		
	+	-		
건축	17(4.9)	4(0.7)		
	+	-		
만화	45(12.9)	29(5.1)		
	+	-		
디자인	79(22.6)	29(5.1)		
	+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2) 거주, 경제적 조건의 차이

-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간에는 거주지의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며, 세부적으로 예술인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예비예술인의 경우 그 외의 다른 유형들에서 예술인들보다 비중이 높음

〈표 112〉 거주자 유형별 차이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χ^2	p값
혼자(1인 가구)	164(46.9)	143(25.0)	222.482	0.000***
	+	-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	11(3.1)	288(50.4)		
	-	+		
부모와 생활(본인+부모)	138(39.4)	112(19.6)		
	+	-		
동료와 생활(본인+동료)	32(9.1)	22(3.9)		
	+	-		
기타	5(1.4)	6(1.1)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간에는 거주지의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며 예술인의 경우 자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예비예술인들의 경우 임대 월세의 비중이 높음

〈표 113〉 거주조건의 차이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χ^2	p값
자가	99(28.3)	315(55.2)	84.814	0.000***
	-	+		
임대 전세	54(15.4)	101(17.7)		
	n.s	n.s		
임대 월세	191(54.6)	147(25.7)		
	+	-		
기타	6(1.7)	8(1.4)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간에는 부채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며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채가 존재하는 비율이 높음

〈표 114〉 부채(빚) 여부의 차이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x^2	p값
있다	119(34.0)	279(49.0)	19.948	0.000***
	-	+		
없다	231(66.0)	290(51.0)		
	+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3) 거주, 경제적 조건의 차이 : 소비패턴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소비생활 부담항목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예비예술인의 경우 식료품비/외식비, 의료비/미용비, 예술활동비(작품창작비용)의 비중이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예술인들은 주거비, 보건의료비, 부채상환비의 비중이 예비예술인에 비해서 높음

〈표 115〉 소비생활 부담항목의 차이(1순위)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x^2	p값
식료품비/외식비	162(46.3)	160(28.9)	123.414	0.000***
	+	-		
주거비(월세,관리비등)	70(20.0)	156(28.2)		
	-	+		
의료비/미용비	16(4.6)	8(1.4)		
	+	-		
교통비/차량유지비	15(4.3)	37(6.7)		
	n.s	n.s		
통신비	3(0.9)	5(0.9)		
	n.s	n.s		
문화여가비	9(2.6)	24(4.3)		
	n.s	n.s		
보건의료비	2(0.6)	18(3.3)		
	-	+		
연료비(전기/가스등)	0(0.0)	5(0.9)		
	n.s	n.s		
경조사비	0(0.0)	3(.5)		
	n.s	n.s		
자기계발비(학원비등)	13(3.7)	30(5.4)		
	n.s	n.s		
교육비/취업준비비	17(4.9)	39(7.1)		
	n.s	n.s		
부채상환비	6(1.7)	64(11.6)		
	-	+		
예술활동비(작품창작비용)	37(10.6)	4(0.7)		
	+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4) 정서 · 건강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여부에 따른 건강악화로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예비예술인들이 예술인들보다 건강악화로 인해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이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16〉 최근 1년 사이 건강악화로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여부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χ^2	p값
예	114(32.6)	136(24.1)	7.775	0.005**
	+	-		
아니오	236(67.4)	428(75.9)		
	-	+		

주: *p<.05, **p<.01, ***p<.001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의 관계를 살펴 보면, 예술인의 경우가 예비예술인들에 비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경험이 더 많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17〉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χ^2	p값
없음	291(83.1)	392(69.5)	21.274	0.000***
	+	-		
있음	59(16.9)	172(30.5)		
	-	+		

주: *p<.05, **p<.01, ***p<.001

(5) 위계적 폭력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처방안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예술인보다 예비예술인이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118〉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x2	p값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	100(28.6)	181(33.0)	10.446	0.034*
	n.s	n.s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	149(42.6)	214(39.0)		
	n.s	n.s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다	42(12.0)	76(13.8)		
	n.s	n.s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	56(16.0)	62(11.3)		
	+	-		
기타	3(0.9)	16(2.9)		
	-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간에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면, 예술인 집단이 비예술인 집단에 비해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19〉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x2	p값
알지 못함	330(94.3)	487(88.7)	8.026	0.005**
	+	-		
알고 있음	20(5.7)	62(11.3)		
	-	+		

주: *p<.05, **p<.01, ***p<.001

*re-coding: 1(알지 못함→1=전혀 모른다, 2=잘 알지 못한다), 2(알고 있음→3=잘 알고 있다, 4=매우 잘 알고 있다)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의 성폭력 방지방안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면, 예비예술인들은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에서 예술인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고 비예술인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성폭력 신고/상담지원기구 운영 항목에서 예비예술인보다 높은 선호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120〉 예술계 성폭력 방지방안

	예비예술인(n=350)	예술인(n=572)	x2	p값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89(25.4)	159(29.0)	37.748	0.000***
	n.s	n.s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28(8.0)	73(13.3)		
	-	+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198(56.6)	206(37.5)		
	+	-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지원기구 운영	33(9.4)	100(18.2)		
	-	+		
기타	2(0.6)	11(2.0)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및 여성차별에 대한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예비예술인들이 예술인들보다 높은 평균(부정적 평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21〉 젠더평등에 관한 인식도의 차이

		예비예술인 (n=350)	예술인 (n=572)	t값	p값
성폭력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58	2.35	2.031	0.003**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60	2.32	3.615	0.000***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2.31	2.12	2.745	0.006**
여성차별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65	2.27	4.635	0.000***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69	2.31	4.424	0.000***
	창작활동 지원(비용/공간, 발표기회 등)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49	2.19	3.883	0.000***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52	2.19	4.143	0.000***

주: *p<.05, **p<.01, ***p<.001

(6) 대전 예술활동 여건에 관한 집단별 인식 차이

- 예비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대전 예술활동 여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예비예술인들의 평균이 예술인들보다 높았으나(긍정적 평가), 이 중 ‘예술지원사업 절차의 편리’와 ‘예술정책 결정 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문항에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표 122〉 대전 예술활동 여건에 관한 인식도의 차이

	예비예술인 (n=350)	예술인 (n=572)	t값	p값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2.61	2.53	1.382	0.167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2.57	2.53	0.780	0.435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2.63	2.55	1.394	0.164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2.49	2.40	1.644	0.100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2.45	2.42	0.455	0.649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2.51	2.31	3.400	0.001**
예술정책 결정 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2.54	2.32	3.847	0.000***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2.39	2.25	2.278	0.023*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2.38	2.33	0.744	0.457

주: *p<.05, **p<.01, ***p<.001

2) 중범위 예술분야별 분석

- 설문조사 시 구분했던 17개 예술활동 분야에 대하여 지원사업 절차를 참고하여 4개 중범위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① 문학(출판)
- ② 시각예술 : 평면회화, 입체설치,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
- ③ 공연예술 :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대중음악, 연예
- ④ 영화·만화

※ 영화와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는 대전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대전문화재단이 아닌 정보문화 산업진흥원, 대전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서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특성에 따라 문학(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과는 별도 범주로 독립 구성함

※ 기존에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분야 중 하나인 '다원예술'은 본 조사에서 분류하지 않아 제외함

※ 건축분야의 경우, 타 예술분야에 비해 실용적인 경향이 강한 건축 현장의 특성상 활동 여건과 환경이 이질적인 관계로 동일한 예술범주로 포함해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본 조사의 방향과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건축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1) 예술활동

- 활동분야에 따른 해당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횟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참여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시각예술과 영화/만화 분야의 경우, 발표 또는 참여횟수가 적은 편인 반면, 공연예술은 타 분야에 비해 ‘16회 이상’의 응답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작품의 발표 또는 참여횟수가 많음

〈표 123〉 (2018년) 주 활동분야별 해당분야 참여횟수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0회	2(3.2)	28(16.5)	6(2.1)	8(18.2)	126.395	0.000***
	n.s	+	-	+		
1~5회	31(49.2)	85(50.0)	91(31.3)	30(68.2)		
	n.s	+	-	+		
6~10회	19(30.2)	28(16.5)	48(16.5)	4(9.1)		
	-	n.s	n.s	n.s		
11~15회	3(4.8)	16(9.4)	35(12.0)	2(4.5)		
	n.s	n.s	n.s	n.s		
16회 이상	8(12.7)	13(7.6)	111(38.1)	0(.0)		
	-	-	+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작품 발표나 참여 일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참여 일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문학(출판)과 시각 예술이 참여일 수 30일 미만인 응답이 많았던 반면, 공연예술은 90일 이상인 응답이 많은 차이를 보임

〈표 124〉 (2018년) 주 활동분야별 해당분야 참여일수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30일 미만	31(49.2)	87(51.2)	75(25.8)	22(50.0)	51.817	0.000***
	+	+	-	n.s		
30~60일 미만	12(19.0)	32(18.8)	54(18.6)	6(13.6)		
	n.s	n.s	n.s	n.s		
60~90일 미만	9(14.3)	28(16.5)	53(18.2)	3(6.8)		
	n.s	n.s	n.s	n.s		
90일 이상	11(17.5)	23(13.5)	109(37.5)	13(29.5)		
	n.s	-	+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참여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공연예술분야의 자원봉사 비율이 높았던 반면, 시각예술과 영화/만화는 참여경험이 적음

〈표 125〉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있음	47(74.6)	104(61.2)	229(78.7)	19(43.2)	32.620	0.000***
	n.s	-	+	-		
없음	16(25.4)	66(38.8)	62(21.3)	25(56.8)		
	n.s	+	-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별 작업실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창작공간 보유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시각예술의 경우 창작공간(거주공간에 별도공간)이 있는 비율이 타분야에 비해 높은 반면, 공연예술은 작업실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런 차이는 개인작업 중심의 분야와 협업이 중심이 되는 분야의 예술적 특성의 차이와 연계될 수 있음

〈표 126〉 활동분야별 창작공간 보유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있음(거주공간에 별도공간)	17(27.0)	57(33.5)	45(15.5)	11(25.0)	29.565	0.000***
	n.s	+	-	n.s		
있음(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공간)	9(14.3)	32(18.8)	36(12.4)	6(13.6)		
	n.s	n.s	n.s	n.s		
없음	37(58.7)	81(47.6)	210(72.2)	27(61.4)		
	n.s	-	+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2) 생활복지

- 활동분야에 따른 개인소득에서 예술활동수입 비중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른 개인소득의 예술활동수입 비중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문학과 영화/만화의 경우 '없음'이란 응답이 많은 반면, 공연예술의 경우, 타장르에 비해서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7〉 활동분야별 월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없음	29(46.8) +	65(38.5) +	34(11.8) -	18(40.9) +	96.447	0.000***
30% 미만	25(40.3) n.s	54(32.0) n.s	84(29.1) n.s	6(13.6) -		
30~50% 미만	1(1.6) -	14(8.3) n.s	29(10.0) n.s	6(13.6) n.s		
50~70% 미만	4(6.5) n.s	6(3.6) -	30(10.4) +	2(4.5) n.s		
70~100% 미만	1(1.6) -	10(5.9) n.s	34(11.8) +	4(9.1) n.s		
100%	2(3.2) -	20(11.8) -	78(27.0) +	8(18.2)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여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문학(출판)분야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분야에 비해 높았던 반면, 영화/만화의 경우는 미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28〉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국민연금 가입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가입	47(77.0) +	102(62.2) n.s	158(56.6) n.s	14(31.8) -	22.883	0.000***
미가입	14(23.0) -	62(37.8) n.s	121(43.4) n.s	30(68.2)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타분야에 비해 시각예술의 가입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영화/만화의 경우 미가입자의 비중이 높았음

〈표 129〉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건강보험 가입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가입	44(72.1)	132(80.5)	208(74.6)	24(54.5)	12.482	0.006**
	n.s	+	n.s	-		
미가입	17(27.9)	32(19.5)	71(25.4)	20(45.5)		
	n.s	-	n.s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산재보험(예술인복지재단) 가입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가입여부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전체적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율이 낮은 가운데, 공연예술분야의 가입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30〉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산재보험(예술인복지재단) 가입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가입	3(4.9)	14(8.5)	38(13.6)	1(2.3)	8.920	0.030*
	n.s	n.s	+	n.s		
미가입	58(95.1)	150(91.5)	241(86.4)	43(97.7)		
	n.s	n.s	-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산재보험(직장) 가입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가입여부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직장을 통한 산재보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각예술과 영화/만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장 산재보험의 비율이 낮았음

〈표 131〉 활동분야별 예술분야 관련 산재보험(직장) 가입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가입	17(27.9)	33(20.1)	92(33.0)	5(11.4)	14.522	0.002**
	n.s	-	+	-		
미가입	44(72.1)	131(79.9)	187(67.0)	39(88.6)		
	n.s	+	-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활동 과정에서의 업무상 상해경험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 분야에 따라 상해경험 여부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공연 예술분야의 경우, 타분야에 비해 상해 경험에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문학과 시각예술은 상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았음

〈표 132〉 활동분야별 예술활동 과정 시 업무상 상해 경험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상해 경험 있음	6(9.7)	22(13.1)	77(26.8)	6(13.6)	18.749	0.000***
	-	-	+	n.s		
상해 경험 없음	56(90.3)	146(86.9)	210(73.2)	38(86.4)		
	+	+	-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별 예술창작활동 측면에서의 개인수입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영화/만화 분야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학, 시각예술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표 133〉 활동분야별 개인수입 만족도(예술창작활동측면)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F값	p값
개인수입 만족도 (예술창작활동측면)	1.85L	1.85L	2.09LM	2.18M	3.387	0.018*

주: *p<.05, **p<.01, ***p<.001, a 사후검정 결과(L<M)

(3) 정서건강

-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업적 활동에서의 만족도의 경우, 공연예술분야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문학과 영화/만화분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예술가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문학 분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영화/만화분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34〉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F값	p값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2.98L	3.17LM	3.40M	3.00L	6.022	0.000***
예술가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3.18M	2.90LM	3.07LM	2.82L	2.661	0.047*

주: *p<.05, **p<.01, ***p<.001, a 사후검정 결과(L<M)

(4) 예술노동과 고용형태

- 활동분야에 따른 전업/비전업 예술인 여부를 살펴보면, 분야별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공연예술의 경우 전업 예술인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문학과 시각예술의 경우 비전업 예술인의 비중이 높은 차이를 보임

〈표 135〉 활동분야별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전업 예술인	13(22.8)	73(45.3)	195(68.9)	22(50.0)	52.544	0.000***
	-	-	+	n.s		
비전업 예술인	44(77.2)	88(54.7)	88(31.1)	22(50.0)		
	+	+	-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활동 서면계약 체결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분야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계약경험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시각예술분야의 경우는 경험이 없는 비중이 높음

〈표 136〉 활동분야별 예술활동 (서면)계약 체결 경험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계약 경험 없음	36(63.2)	99(61.5)	138(48.8)	20(45.5)	9.959	0.019*
	n.s	+	-	n.s		
계약 경험 있음	21(36.8)	62(38.5)	145(51.2)	24(54.5)		
	n.s	-	+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표준계약서 양식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분야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영화/만화 분야의 경우 타분야에 비해 표준계약서 양식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음

〈표 137〉 활동분야별(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양식 인지 여부(re-coding)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모름(1+2)	46(83.6)	133(82.6)	214(76.2)	25(56.8)	14.556	0.002**
	n.s	n.s	n.s	-		
알고 있음(3+4)	9(16.4)	28(17.4)	67(23.8)	19(43.2)		
	n.s	n.s	n.s	+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부당한 대우(임금 체불) 경험 여부에서, 공연예술과 영화/만화 분야에서 다른 활동분야에 비해 임금 체불을 당한 경험이 높음

〈표 138〉 활동분야별 부당한 대우(상당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함) 경험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있다	4(7.3)	19(11.8)	80(28.5)	16(36.4)	31.103	0.000***
	-	-	+	+		
없다	44(80.0)	118(73.3)	176(62.6)	22(50.0)		
	+	+	-	-		
모름	7(12.7)	24(14.9)	25(8.9)	6(13.6)		
	n.s	n.s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활동 이외의 부업이 생계에 도움되는 정도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분야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영화/만화의 경우 예술

활동 이외의 부업이 생계에 주는 도움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시각예술은 평균이 타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139〉 활동분야별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의 도움 여부(생계측면)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F값	p값
예술활동 외 부업이 생계에 주는 도움 정도	3.05LM	2.83L	3.26MH	3.45H	6.687	0.000***

주: *p<.05, **p<.01, ***p<.001, a 사후검정 결과(L<M<H)

-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영화/만화 분야가 타분야에 비해 전체적으로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140〉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계 내부 성폭력 실태 인식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F값	p값
예술교육이나 연습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30L	2.41L	2.24L	2.84M	4.626	0.003**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28L	2.38L	2.20L	2.91M	6.511	0.000***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	2.06L	2.27LM	2.00L	2.41M	5.004	0.002**

주: *p<.05, **p<.01, ***p<.001, a 사후검정 결과(L<M<H)

- 활동분야에 따른 예술계 내부의 여성차별 실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영화/만화 분야가 타분야에 비해 전체적으로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41〉 활동분야별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실태 평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F값	p값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의 차별	2.33LM	2.50M	2.07L	2.60M	7.310	0.000***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의 차별	2.43LM	2.51M	2.13L	2.58M	5.323	0.001**
창작활동 지원 수혜에서의 차별	2.24LM	2.44M	2.01L	2.37M	6.851	0.000***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배분에서의 차별	2.22LM	2.41MH	1.99L	2.56H	8.163	0.000***

주: *p<.05, **p<.01, ***p<.001, a 사후검정 결과(L<M<H)

(5) 예술정책과 예술인복지정책

- 활동분야에 따른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사업 신청 여부를 살펴보면, 장르별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문학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신청 비율이 높음

〈표 142〉 (2018년) 활동분야별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신청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신청함	26(45.6)	32(20.3)	60(21.6)	12(27.3)	16.851	0.001**
	+	n.s	n.s	n.s		
신청 안함	31(54.4)	126(79.7)	218(78.4)	32(72.7)		
	-	n.s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별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살펴보면, 활동분야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문학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사업 신청 비율이 높았음

〈표 143〉 (2018년) 활동분야별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신청 여부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신청함	12(21.1)	13(8.2)	28(10.1)	3(6.8)	8.359	0.039*
	+	n.s	n.s	n.s		
신청 안함	45(78.9)	145(91.8)	250(89.9)	41(93.2)		
	-	n.s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 활동분야에 따른 민간의 문화사업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활동영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타 분야들에 비해 신청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여줌

〈표 144〉 (2018년) 활동분야별 민간의 문화사업 참여 여부

구분	문학(출판) (n=63)	시각예술 (n=170)	공연예술 (n=291)	영화/만화 (n=44)	χ^2	p값
신청함	5(8.8)	15(9.5)	51(18.3)	5(11.4)	8.485	0.037*
	n.s	-	+	n.s		
신청 안함	52(91.2)	143(90.5)	227(81.7)	39(88.6)		
	n.s	+	-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3) 기타 집단별 예술인 실태

(1) 예술활동 수입의 비중과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

- 개인소득 중에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술창작활동 만족도와 생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30% 미만인 경우의 만족도가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서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즉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이 높을 때, 예술창작활동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

〈표 145〉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중과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

	개인 소득 중 예술활동수입 비중					F값	p값
	30% 미만 (n=170)	30~50% 미만 (n=51)	50~70% 미만 (n=42)	70~100% 미만 (n=49)	100% (n=108)		
예술창작 활동 만족도	1.80Lb	2.33H	2.21H	2.14H	2.21H	6.023	0.000***
생계 및 생활 만족도	1.68L	2.08H	2.02H	2.08H	2.15H	6.231	0.000***

주: *p<.05, **p<.01, ***p<.001, a “없음”에 대한 응답 제외, b 사후검정 결과(L(H))

(2) 전업예술인 여부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여부

- 전업 예술인 여부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업 예술인이 비전업 예술인 간에 예술활동 시 계약체결 경험의 차이가 있었으며, 전업 예술인의 계약체결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46〉 (2018년 기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여부

		전업 예술인 여부		x2	p값
		예(n=305)	아니오(n=244)		
(2018년 기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여부	없음	129(42.3)	166(68.0)	36.120	0.000***
		-	+		
	있음	176(57.7)	78(32.0)		
		+	-		

주: *p<.05, **p<.01, ***p<.001

(3) 성별에 따른 창작공간 보유 여부

- 성별에 따른 창작공간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창작공간을 갖지 못한 비율이 남성이 53.8%인 반면, 여성은 70.2%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임

〈표 147〉 성별에 따른 창작공간 보유 여부

	남성(n=277)	여성(n=289)	x2	p값
있음(거주공간에 별도공간)	82(29.6)	49(17.0)	17.326	0.000***
	+	-		
있음(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공간)	46(16.6)	37(12.8)		
	n.s	n.s		
없음	149(53.8)	203(70.2)		
	-	+		

주: *p<.05, **p<.01, ***p<.001

(4) 성별에 따른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실태 인식

- 성별에 따른 예술계 내부의 여성차별 실태 인식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차별 관련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평균(부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예술계 내부의 여성차별 실태에 대한 인식이 낮음

〈표 148〉 성별에 따른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실태 인식

		남성 (n=277)	여성 (n=289)	t값	p값
여성 차별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09	2.42	3.571	0.000***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2.08	2.52	4.790	0.000***
	창작활동 지원(비용/공간, 발표기회 등)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1.98	2.37	4.610	0.000***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1.98	2.36	4.364	0.000***

주: *p<.05, **p<.01, ***p<.001

(5) 성별에 따른 예술활동 중단(경력단절) 사유

- 예술활동 중단(경력단절) 경험자 중 성별에 따른 예술활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성별 구분없이 생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출산/육아에서는 여성이 22.0% 남성이 0.9%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술계에서도 출산/육아가 여성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예술가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49〉 성별에 따른 예술활동 중단 사유

	남성 (n=277)	여성 (n=289)	χ^2	p값
학업	8(8.1)	10(8.5)	30.148	0.000***
	n.s	n.s		
출산/육아	1(0.9)	26(22.0)		
	-	+		
건강문제	11(9.9)	19(16.1)		
	-	+		
생계	84(75.7)	60(50.8)		
	+	-		
기타	6(5.4)	3(2.5)		
	n.s	n.s		

주: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6) 전업 예술인 여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

- 전업 예술인 여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전업 예술인이 비전업 예술인들에 비해 개인의 정서 상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소외 부분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표 150〉 전업여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

		전업 예술인 (n=301)	비전업 예술인 (n=241)	t값	p값
감정 상태	불안	1.84	1.69	2.727	0.007**
	우울	1.89	1.72	2.623	0.009**
	소외	1.61	1.51	1.711	0.088
	전체	1.78	1.64	2.632	0.009**

주: *p<.05, **p<.01, ***p<.001

(7) 연령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

- 연령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개인 정서에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균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젊은 연령층의 예술인들에게서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151〉 연령대에 따른 정서상태 평가

	20대 (n=120)	30대 (n=139)	40대 (n=98)	50대 (n=98)	60대 (n=84)	70대이상 (n=19)	F값	p값
불안	2.00H	1.93H	1.72LH	1.58L	1.49L	1.58L	10.773	0.000***
우울	2.01H	1.86LH	1.84LH	1.73LH	1.51L	1.58L	5.263	0.001**
소외	1.64	1.66	1.53	1.46	1.40	1.49	2.661	0.022*
전체	1.88H	1.82MH	1.70LM	1.59LM	1.47L	1.55LM	6.711	0.000***

주: *p<.05, **p<.01, ***p<.001, a 사후검정 결과(L<M<H)

(8) 연령대에 따른 예술계 내 성폭력 실태 평가

- 연령대에 따른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실태의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20~30대 젊은 층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평균이 높았던(부정적)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경향을 보여줌

〈표 152〉 연령대에 따른 예술계 내 성폭력 실태 평가

	20대 (n=120)	30대 (n=139)	40대 (n=98)	50대 (n=98)	60대 (n=84)	70대이상 (n=19)	F값	p값
예술교육이나 연습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55H	2.49H	2.33H	2.13LH	2.07LH	1.71L	4.970	0.000***
예술산업/조직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53H	2.50H	2.24H	2.01LH	2.17H	1.65L	5.839	0.000***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	2.37H	2.18H	2.04LH	2.03LH	1.90LH	1.59L	3.619	0.000***

주: *p<.05, **p<.01, ***p<.001, a 사후검정 결과(L<M<H)



3장. 심층면접 결과

1. 예술활동과 생활
2. 정책에 관한 인식과 요구

1. 예술활동과 생활

1) 지역 문화예술계 인식 전반

(1) 지역 예술가의 예술관 및 자기 인식

① 예술관

- 예술을 통해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점, 즉 예술을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관점을 보임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것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릴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 - 문학

분명히 사람들에게 예술이 필요한 거고.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예술의 가치인 것 같아요. - 평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 - 디자인(예비)

- 한편, 일부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자기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예술을 개인적 맥락으로 접근하기도 함

자기를 그냥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 디자인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학(예비)

② 자기 인식

- 예술 또는 예술가를 자신의 숙명으로 인식하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

제가 놓지 않는다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게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스스로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본인을 예술가라고 칭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 디자인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그걸 끊고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 더 안 좋아지면 슬프겠지만 계속 예술가로 살기는 할 것 같아요.

- 문학

노벨 문학상을 받는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80살까지는 살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마디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문학

- 그러나 독립적인 예술활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점 등 예술활동을 펼치는 기반 환경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음. 특히 예비예술인의 경우, 졸업 이후 예술가의 삶을 어떻게 시작할지조차 막막함을 느끼고 있음

문학이 없으면 역사가 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시대가 그것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 문학

지원 사업이 아닌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이 구조가 고민이죠. 지원 사업 없이도 공연을 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손해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 연극

제가 앞으로도 이 일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일을 아예 본업으로 삼아서 해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취미생활로만 놓고 부업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 디자인

당장 내년이 고민이에요. 졸업 이후 예술가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것 자체가 고민이죠.

- 평면 예비

- 예술가 개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예술 기반 환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바람은 별개가 아님

예술가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는 게 많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간담회 같은 것도 일부러 참여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도 날카롭게 보려고 하고요. 불만만 토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예술가로서 평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 연극

(2)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

① 긍정적

- 거시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다양성과 지역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냄

저는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추구하는 편이라서, 지역마다 균형이 잡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지금은 서울권에 모든 예술활동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저는 지역도 지역 나름대로의 독특한 예술 및 문화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 많이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지방에서 그들만의 기반을 형성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예술활동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무용

② 부정적

- 서울에 비해 정보 및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인식함

정보의 차이가 불러오는 영향이 큰데, 서울은 문화 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도 많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도는 정보의 질이 지방보다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서울에 비해 지방이 힘든 게 있어요.

- 만화

지역적인 기득권층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작업에 대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 평면

- 예술 및 창작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예술활동 체계 또한 허술하다는 의견을 보임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낮고, 문화 수준도 낮고요. 관객 호응도도 정말 미적지근해요.

- 음악

기업에서 디자인 외주 작업을 맡길 때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고 요구가 말도 안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대전에서 이런 문화가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 디자인

- 예술활동을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성을 쌓을 만한 경험의 기반 또한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함

대전에 일단 접하고 경험하고 제가 뭔가 해나가기에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대부분 전시 같은 것도 서울에서 하고 포스터 발주나 이런 것도 대부분 서울에서 하는 것이 퀄리티도 높고 해서 한계를 느껴요.

- 디자인

- 지역 문화예술계의 경직성 또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되고 있음

제가 의견을 말하면 그 말을 들어줄 줄 알았던 거죠. 나 한 명의 인식이 변하면 청년들의 인식도 변하고 시의 인식도 변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긍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고 요즘 느껴요.

- 연극

2)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1) 예술활동 · 경력단절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① 생계유지에 의한 예술활동 · 경력단절

- 생계유지를 이유로 예술활동과 경력이 단절되는 경험을 다수 겪고 있음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술을 하지 못하게 돼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겪는 사람은 꽤 있을 거예요. - 문학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을 해야 하고 그걸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피아노를 전공을 했으면 피아노 연주를 해야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 음악

② 경력단절 개념 적용의 모호함

- 예술계의 ‘경력단절’은 예술 특성상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른 모호함이 있음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 안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예술활동으로 글을 쓰면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경력단절인가? - 문학

저희가 정규직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책 한 권을 출간하고 인세를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구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에 따르자면 매번이 경력단절인 것 같은데요. - 문학

③ 경력 유지

- 경력을 유지하기가 불투명하고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예술계 현실 탓에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 또한 있음

요즘 데뷔하는 작가들은 많은데 바로 후속작에 들어가는 작가들은 수가 굉장히 적어요. 백명이 데뷔를 한다 치면 그 중 삼, 사십 명밖에 후속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첫 작품이 흥행한 소수만 후속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염없이 준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작가들이 많아요. - 만화

(2) 예술 작업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경험과 관점

①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

-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택함으로써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낌

대부분의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서 꼭 일을 해야죠. 그렇다고 그 일에 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사색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책을 읽을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가한테는 큰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일을 하다 보면 감성도 다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지니까 겸업을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 문학

② 예술 관련 일자리로 생계유지를 해결하는 경우

- 예술작업과 현실 생계유지의 타협점으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갖는 것을 택함

피아노 치는 걸로는 돈을 못 버니까 적어도 피아노와 관련된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중략) 일단 지금은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구요.

- 음악

사진 일을 그래도 1년 반 동안 했었어요. (...) 회화작가이긴 하지만, 사진을 배워두면 전시할 때 내 작업을 직접 찍어둘 수도 있고, 직장엔 만족도가 있진 않았지만 솔직히 사진 찍는 건 재밌었어요. 사진 실력도 빨리 늘었죠.

- 평면

3)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1)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① 보수와 관련된 부당대우 문제

- 무급, 적정선 이하 보수 책정 등 부당한 보수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음. 특히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부당한 보수를 책정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프리랜서 계약, 직장 내 근로, 학교 내 교수에 의한 노동 착취 등 경로 또한 다양함

특히나 무급으로 전시한 적도 많았고, 무급으로 전시를 도와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전시에서는 기획자가 제 친구 작가를 작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도중에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그럴 거면 애초에 섭외를 하지 말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생각도 아니었고 일방적이었어요. - 평면

일해 놓고 돈 못 받는 게 문제죠. 연극을 제작할 때 지원금이 필수적인데, 지원금 중 10%가 작가료로 배분이 되고 그대로 명시해서 서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큼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극작가나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많이 미흡하죠. - 문학

신인 작가나 덜 알려진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죠. 임금을 조정할 때 적정선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 만화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던 기획사를 그만둔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요. (중략) 3개월 일할 사람 뽑고, 돈 안 주고, 이런 것들요.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기획사는 그걸 이용했던 거죠. - 음악

영화 스토리보드 만드는 작가 일을 했을 때, 유명한 업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예요. 거기서 작업하는 분들 중에 3개월 동안 작업한 거에 대한 보수를 못 받은 분도 계셨고, 저한테도 약속한 것들도 지키지 않고 그림 연습이나 하라면서 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나왔는데 오히려 업체 측에서 저한테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만화

한 교수님께서선 자신이 개인전을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돈은 주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지를 않아서, 전시하고 있을 도중에 수업 시간에 와 가지고 너희들은 교수가 전시하는데 도와드리겠냐는 말도 안꺼내보냐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 평면(예비)

- 그러나 보복이나 피해가 걱정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제가 지금 그 당시의 일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대전에서 계속 활동할 계획이 있는 한 해당 기획사에 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 안에 구축된 인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전이 정말 좁거든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니까 말이 쉽게 돌고, 그러니 선불리 시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겪어도 혹여나 저에게 피해가 올 까봐 함구하게 되는 거죠.

- 음악

② 수직적인 관계에 의한 부당대우 경험

-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급여뿐 아니라, 연습 기간 등 자율성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

개인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일을 겪을 경우가 많이 없는데, 만약 어떤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밑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소위 말하는 인건비나, 아니면 연습 기간 등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 안에서 부당대우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 무용

열정페이와 같은 임금에 대한 부당함이 굉장히 심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교수와 제자 사이에 형성되는 수직관계가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중략) 내가 너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나와서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 연극

- 수직적인 관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의 멘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인맥을 통해서 전시를 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약간 좀 교수님들께서 심사위원도 하시고 지인 관계로서 술자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친하다는 이유 또는 뭔가 미묘하게 성추행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50대 40대? 저는 매우 안 좋게 생각해요.

- 설치

- 예술대학 내 교수가 학생에게 가하는 막말 또는 ‘갑질’ 문제 또한 여러 번 제기됨

교수님들이 다 막말을 하신다고 해야 하나? 학생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시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가서 뭘 공연을 하나면서. (교수가) 서울 오신 분인데 지방대라고 무시를 계속하세요.

- 음악(예비)

교수님이 커피를 사 오라고 하셔서 커피를 사 갔는데 본인이 먹는 맛이 아니라고 다시 가져다주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저랑 같은 클래스에 3학년 언니가.

- 디자인(예비)

③ 인맥, 학맥 중심의 예술계 관행에 의한 부당대우

- 인맥 혹은 학맥이 우선시되어, 실력을 쌓는 일이 등한시되고 경력을 쌓을 만한 기회 또한 공정하게 부여되지 않음

경력보다 학벌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음악 쪽에서는 그게 조금 더 심한 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어디 대학교 어디 학과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쓰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누구누구 선생님께 사사 받았다는 거를 필수적으로 쓰더라고요. (중략) 음악 쪽에서는 굉장히 줄타기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 음악

대전시립미술관에서 1년에 한 번씩 미술 대전인가 상 시상하고 전시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 대학 학생이라고 뽑아주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진 미술 대회 같은 곳이었죠.

- 평면

(2) 예술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감에 대한 인식

- 예술계 도덕적 수준을 타 활동 영역과 비교했을 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인맥 중심 관행 탓에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있음

해이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좁은 사회인 경우가 많으니까 제대로 해결을 못 한다는 점이 무서운 거죠.

- 문학

- 예술단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예민함이 떨어진다고 보는 의견도 있음

문제들의 원인이 단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한 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연을 했다는 경력만 있으면 허가가 나거든요. 이렇게 단체는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데, 정작 도덕적인 책임감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연극

- 예술계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또한, 예술계 내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단면이라 볼 수 있음

저는 계약서를 쓰는 일보다는 독립출판으로 먼저 활동을 했었는데, 독립출판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그분 작품의 제목을 표절해서 ISBN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독립 작가분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ISBN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힘없고, 계약을 맺지 못하는 문화인들이 겪는 정당하지 못한 사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문학

(3) 예술계 내부 인맥 중심 관행 경험 여부와 관련 문제 인식

① 계약서 미작성과 구두계약

- 지인 간에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여김. 한편,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상황이 계약서 미작성의 이유가 되기도 함

예술 계약서가 있어도 작업 자체를 아는 분들끼리,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봐야죠. - 만화

졸업하신 분들만 계약서를 쓰고 재학생들은 아예 계약서를 안 썼는데. (중략) 원래 금액은 모르고 얼마를 줄 거라고 말씀만 해 주시니까. - 음악(예비)

② 기획의 차등과 진입장벽의 문제

- 원로 예술가를 중심으로 기회와 정보가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신진 예술가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원가 나는 나름대로 판을 짜는데, 돈은 어쨌든 원로 예술가들 사이에서 돌 테니까. 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죠. 나랑 별로 가치관이 안 맞을 텐데 하는. 하지만 돈이나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입주한 테미오레같은 경우 기회나 정보 같은 것들이 그쪽에서 돌 확률이 높으니까.

- 문학

- 인맥에 따라 활동과 기획의 차등이 발생하고, 인맥 관리에 몰입하도록 하는 구조임

지방 예술가에게는 그것도 핸디캡이에요. 같은 극작가여도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는지,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 인맥의 활동 범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어지는 기회에도 차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 문학

결국 예술계에는 인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생적인 제도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노력해서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야 돼요.

- 음악

(4) 예술 분야 계약 문제 관련 경험과 계약서 개선사항

① 표준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하고 있음

계약서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배포한 표준계약서도 봤어요. 지금 전시를 하나 준비 중인데 이번에는 그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중략) 그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어떤 갤러리 관장이 구두로 내년엔 전시를 잡아주겠다고 하니 하면서 말만으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평면

② 표준계약서 미작성의 이유와 관련 경험

- 예술계 인맥 등 인간관계에 의한 구두계약 자체가 예술계 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음

예술계에서 돈을 터부시하는 예술가 사고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없는 거지, 맨날 구두로 인맥으로 이야기하고, 돈거래 안 하니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갤러리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정작 예술계 내부에서는 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요. 이게 다 예술계는 거의 다 지인, 인맥이고, 전시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설치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쓰자고 할 때 연극의 경우 대부분의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묶이면 처음에 내세웠던 규정에 대해 말을 바꿀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연극은 애초에 인맥을 타고 제작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관습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죠. - 연극

- 공공기관과의 계약, 유명한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임

후배들은 보면 표준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 맡게 되는 일마다 다 양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작가의 명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스토리보드 작업에 있어서도 계약서가 없었어요. - 만화

프로젝트의 성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공공기관과 계약을 해서 초청 등의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사적인 공간의 경우에는 아직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 무용

③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 개선사항

- 계약서 내 포괄적인 표현이 부당대우에 악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조항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아무리 표준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계약서를 내밀면서 조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주장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드니까요. 표준계약서 자체는 좋지만 조항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연극

- 계약서 내용에 작업 진행 과정에 대한 준수 사항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음

수정을 몇 번 거친다. 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없이 진행이 되니까. 작업 마감 시간은 공지하시면서 돈은 언제 주시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작업서를 제가 쓰자고 제안할 수는 없죠. 그쪽이 갑이니까 어쨌든. 그쪽이 가져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하기가 어려운. - 문학

전시를 진행할 때 보통 설치뿐 아니라 나중에 철거도 해야 하는데, 이런 전시 진행 과정 전체에 대한 준수 사항 같은 것들이 또 계약서 안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 설치

계약서에 수정 기한이나 수정 횟수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틀 안에 이제 제품이 나와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3일 전에 다시 해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 디자인(예비)

2. 정책에 관한 인식과 요구

1)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1)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① 예술활동을 위한 작업공간의 중요성

-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작업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그냥 집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단독주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
음도 어렵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까 작업실을 구할 수 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 음악

설치작가는 작업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하지만 이 작업실을 유지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재 작업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
게 여유가 있진 않은 편이라 싸고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작업실을 구했어요.
- 설치

사실 페인팅 작가에게 작업실은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집에서 페인팅을 한다는 건
무리죠. 최근에는 작업실을 단기로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업실이 있
어야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 평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용은 특히 공간에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작업실이 굉
장히 중요하죠. 창작의 근원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집과 같은 저의 사적인 공간에서
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무용

- 일상생활 공간과 예술활동을 위한 작업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업실의 중
요성을 피력하는 의견도 있음

많이 중요하죠. 집에서 작업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집이 더 이상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게 되니까요. 작업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 만화

중요하죠.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은 무조건 분리돼야 해요. - 문학

- 별도의 작업실이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최근에 9월 말에 테미오레 작업실을 쓰게 되었어요. 11월 말에 나가게 되는데, 작업실이 있으니까 180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게 되고,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방음이 유지되는 것.

- 문학

집중도 자체가 달라요. 작업실은 그곳에 있기만 해도 작업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창의적인 발상도 더 잘 떠오르거든요.

- 만화

② 작업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 작업실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작업실을 유지하는 비용과 관리의 부담이 있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웹툰창작실에 들어갔을 때 전기값하고 인터넷비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작가들은 월세나 그런 비용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 만화

저도 작업실을 유지하는 일이 골치라 혼자 쓰는 작업실은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누구 작업실에 단기로 들어가는 방안을 생각중이에요.

- 평면

-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어려움이 커서 대체 공간을 찾기도 함

작업실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피아노가 가격대가 높다 보니 개인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학원을 많이 가죠.

- 음악

- 작업공간이 있는 예술인의 경우,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함

중요도에 비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개인 스튜디오이긴 하지만 제 공간들을 대전시민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무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용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다시 경제적인 가치로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생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구요.

- 무용

③ 작업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 지원 절차의 어려움과 예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자격 조건의 문제가 있음

서류를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단기로 들어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 평면

신청 절차가 너무 어려워요. 조건 자체가 대전에서 어떤 공연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등록증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5년 이상 작업실과 계약한 장기계약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5년 이상의 장기 계약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조건을 갖추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대전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도 청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중략)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저하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지원 자격과 같은 것들이요.

- 연극

- 작업공간 대여 사업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공간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작업실 지원사업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에 관심이 갔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오픈 시간도 제한되고 사는 집이랑도 멀어서 결국 지원하지 않았어요.

- 평면

- 주변 환경의 안전성 등 작업실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작업실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만화의 경우 전기만 잘 들어오면 돼서 환경 자체가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너무 노출이 많은 공간은 아닌 게 좋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작업할 때가 많으니까 위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은 곳인 게 좋고요.

- 만화

- 예술 분야의 특성에 맞게 시설이 갖추어진 작업공간이 필요함

피아노에 방음 시설까지 지원해 준다면 지원하겠습니다. 방음이 안 되면 절대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원할 의향이 없습니다.

- 음악

무용 같은 경우는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요인이겠죠. 그리고 무용하는 분들은 발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바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더 되면 전면이 비치는 거울 정도가 되겠네요. 음악을 유감없이 틀어도 되는 조건이 형성되면 좋으니까 방음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하는 너무 힘들어요.

- 무용

- 작업실 지원사업 대상(장르)과 지원 자격(나이, 지역)의 다양화가 필요함

지금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웹툰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만화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분야가 아니고 그 안에도 일러스트레이터나 애니메이터 등 다양한 업종이 존재해요. 당장은 웹툰이 가장 전망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웹툰만 중점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 장르가 공생해서 만화라는 장르가 다양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조건을 다양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이도 아예 제약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작업물과 같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놓여온 전형처럼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만화

지원해 주는 분야를 넓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전은 계속 시각 디자인 쪽으로만 열심히 지원하더라고요. 분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문학

(2)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제언

① 청년예술인 관련 대전문화재단의 역할

- 청년예술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보 및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미대 초년, 저학년 학생들이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정보들이 제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 어떤 방향성이 잡힌다고 생각해요. - 평면

청년예술인지원사업 자체가 청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대상만이 청년일 뿐, 지원을 활용하는 권한은 결국 기성단체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 연극

-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통의 통로와 커뮤니티 형성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젊은 음악가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홀로 세상에 내던져지는 거잖아요.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아서 나가야 하는데 그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를 대전문화재단에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전문화재단에서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예로 예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같은 거를 들 수 있겠네요. 예술인들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지잖아요. (...) 저희 같은 개개인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큰 데서 진행하는 게 홍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효율적이니까요. - 음악

- 청년예술인 실태 분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운영 과정을 보면서 지원사업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위에서 내려오니깐, 연례행사처럼 보기 좋게 꾸미기만 하는 거죠.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청년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고,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 연극

② 복잡한 행정절차와 원활하지 않은 소통의 문제

- 지원사업 진행 과정 내 행정 서류처리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예술가 사이에서 흔하게 제기되고 있음

행정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수혜자 분들 사이에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이 들리기도 해요. 주로 수혜자 분들이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다 해도 진행되는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 무용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딱 막힌 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일일이 서류 작성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행정적인 업무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으며, 제가 아는 모든 작가분들이 그런 부분을 처리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중략) 예술가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예술가에게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 문학

- 지원사업의 보완점을 건의했으나 그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음

몇 년 전에 출판 관련으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제작비 말고도 물류비용과 유통비용, 홍보비용도 금액이 크거든요. 특히 홍보가 없으면 책이 금방 사장되기 때문에 홍보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측면이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 대전문화재단에 말한 적이 있지만 전혀 듣지를 않더라구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죠.

- 문학

우리가 뭐 해줄 테니까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런 식의 태도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서 돈 없고 가능성을 펼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 문학

-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통로를 내·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재단 안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술가 개개인이나 예술단체가 재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젊으시고 직접적으로 예술가를 대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을 재단 내에서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 문학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거의 다 사비로 하고 있거든요.

- 디자인(예비)

③ 예술인의 노동력 인정과 정당한 보상

- 재단 사업 관련 프로그램 기획자의 노동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

기획자에 대한 페이가 책정되지 않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획자의 업무도 엄연한 노동인데, 한 사람의 노동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평면

5백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한다. 근데 그거를 작가의 인건비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업 정책이 작가를 위한 것인지, 재단을 위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 문학

- 예술 전공 관련 일자리 연계 사업 등 예술노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 또한 있음

다른 데서는 예술가들 돈 주고 하는 것보다 직업 같은 걸 연계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공 관련 일들을요, 지원사업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이런 거를 연결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설치

④ 장르에 대한 시대적 변화 부응 및 재단의 공정성 확보

-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융통성이 필요함

시대의 흐름에 맞춘 융통성을 갖출 필요도 있다고 봐요.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 유튜브 등 큰 매체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융합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중략) 이걸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한다, 이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 만화

문학 관련해서 고정화된 선입견을 넘어서면 좋겠어요. 요즘 독립출판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등단하고 잘 알려진 작가, 그런 작품만 문학관 같은 데서 전시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책방에 있는 그런 다양한 출판물들 관련해서 대전문화재단 자체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학

- 심사위원 초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음

심사위원들을 초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 하시는 분들 개인의 성향과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 무용

더 나은 공정성을 위해 공개심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개심의를 하면 저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적절한 위치나 경험과 같은 것들을 갖추고 계시는지 모든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무용

- 지역 실정에 맞춰 예술인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음

구별로 독립된 예술인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전은 이런 게 없어요. 구마다 독립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분리를 해야 얼마나 다양한 예술인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구 자체에 대한 문화 인식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문화재단이 독식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문화재단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도 열지 않고 결국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 연극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인식

① 긍정적

-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도움
된다는 의견을 보임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증빙을 통해서 신분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들도 듣기는 들었거든요. 예술인들이 겪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 무용

② 부정적

- 예술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냄

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술인활동증명을 했다고 해서 내가 피아노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술인파견 지원사업이나 일자리 지원 사업같은 거를 알고는 있는데 지원 자격이 있었고, 그 제한이 저랑은 안 맞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 음악

- 예술인활동증명 조건이 모호한 점이 있고, 서류 준비 절차 또한 번거로움

등록할 때 소득 정산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소득이 합산이 돼서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소득이 없고 세금 낸 것도 없고 매우 힘든 상황인데 정말 억울한 거죠. 서류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 문학

③ 예술인활동증명 관련 인식과 제언

- 해당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오히려 이런 지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게 뭐냐고 묻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식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어요. (중략)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만큼 내 몫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보니 그만큼 제도가 폐쇄적으로 흐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 연극

저는 독립출판 작가다 보니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안 했는데, 그 이전에 예술인 활동증명에 대해 대부분의 예술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됐어요.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문학

2) 예술대학 교육과정

(1) 예술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제언

① 비전문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

-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교육 과정 및 교수진의 연구 자세 태만으로 인해 강의가 내실 없게 진행된다는 의견을 보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미술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교수님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략) 보통은 되게 관습화되고 얇은 지식들을 옳은 것 마냥 학생들에게 되풀이하거든요. 그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 평면(예비)

뭘 배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공부를 안 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돈 아까워요. 근데 약간 학교는 발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졸업한 지 한참 지난 선배들이 과제 뭐 했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면 아직도 그거 하냐고. (중략) 교수님들은 기초 지식은 있는데 그게 발전시켜서 적용을 못 하시는 거죠. 공부를 안 하셔서. 교수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커리큘럼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매년 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니까. - 디자인(예비)

②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

- 각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직되는 학과 통폐합 과정으로 인해 전공과 관련 없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상황 또한 발생함

학교에 디자인과가 있는데, 디자인과가 문화 어쩌고 과랑 이렇게 3개가 합쳐졌어요. 1학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것이 있는데, 디자인과 관련 없는 수업이 정말 많다고. - 문학(예비)

③ 전공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

- 예술대학의 전공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내 대학교들의 예술 분야 전공들이 되게 낮은 수준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평면(예비)

- 강사 초빙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해 현재 커리큘럼에서 현장 중심 수업을 증대할 것을 제안함

강사 초빙을 해서라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나,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제도권 내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학생들이 간혀있지 않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평면(예비)

(2) 예술 대학 내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과 제언

①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 부족

- 대다수가 졸업 이후 진로 설계에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음

졸업하고 나서 이후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되게 학교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나가서 부딪혀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 평면(예비)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 음악(예비)

② 교외 현장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 필요

-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외 현장 활동 기반 마련이 필요함

가령 활동이라기보다는 취업활동증명을 위한 전시를 또 하긴 해요.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애네들 취업을 높여주려고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 평면(예비)

학생들한테 합창만 하는 것 말고 더 높은 주연이나 다른 역할들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음악(예비)



4장. 설문지, 면접지

1. 실태조사 설문지(예술인)
2. 실태조사 설문지(예비예술인)
3. 심층면접 질문지

ID				
----	--	--	--	--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표본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대전시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문의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상헌 박사(shhan@dsi.re.kr)

조사기간 : 2019년 10월 ~ 12월

※ 응답자 기본 사항 (면접원이 기록)

응답자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 응답자 기본 사항은 답례품(5,000원 상당 기프티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응답자 사전 기록 사항

Q1.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③ 무응답
Q2. 연 령	① 2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세 이상
Q3. 학 령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초대졸 ⑤ 대졸 ⑥ 석사졸 ⑦ 박사수료이상
Q4. 주요 활동지	① 대전 ② 인접지역(공주, 금산, 계룡, 논산, 세종, 옥천)
Q5. 거주지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⑥ 인접지역
Q6. 주요활동분야 (하나만 선택)	① 문학(출판) ② 평면(회화) ③ 공예 ④ 영상(미술) ⑤ 서예 ⑥ 사진 ⑦ 입체·설치 ⑧ 음악 ⑨ 국악 ⑩ 무용 ⑪ 연극 ⑫ 연예(방송, 공연) ⑬ 대중음악 ⑭ 영화 ⑮ 건축 ⑯ 만화 ⑰ 디자인
Q7. 예술활동 전체경력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4년 ④ 5~9년 미만 ⑤ 10~19년 ⑥ 20년 이상
Q8. 대전지역 활동경력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4년 ④ 5~9년 미만 ⑤ 10~19년 ⑥ 20년 이상

I. 예술활동

1.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문학(출판)	② 평면(회화)	③ 공예	④ 입체 · 설치
⑤ 서예	⑥ 사진	⑦ 영상	⑧ 음악
⑨ 국악	⑩ 무용	⑪ 연극	⑫ 연예(방송, 공연)
⑬ 대중음악	⑭ 영화	⑮ 건축	⑯ 만화
⑰ 디자인	⑱ 기타 ()		

2. 현재 주로 종사하고 계신 예술활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창작예술가(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작가, 감독 등)
- ② 실연예술가(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 등)
- ③ 예술기획자(큐레이터, 학예사, 공연/전시기획자 등)
- ④ 문화기획자(커뮤니티아트, 문화사업 기획자 등)
- ⑤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촬영, 음향, 조명, 의상 등)
- ⑥ 예술강사(학교,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 ⑦ 기타(_____)

3. 2018년 한 해 동안(2018.1.1.~12.31) 주 활동 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0회 ② 1~5회 ③ 6~10회 ④ 11회~15회 ⑤ 16회 이상

3-1. 2018년 한 해 동안(2018.1.1.~12.31.) 주 활동 분야에서 예술작품을 발표하거나 참여한 일수를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십니까?

① 30일 미만 ② 30~60일 미만 ③ 60~90일 미만 ④ 90일 이상

4. 귀하가 소속된 단체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① 사단법인	② 주식회사
③ 문화예술전문법인/단체	④ 사회적기업
⑤ 협동조합	⑥ 임의단체
⑦ 소속단체 없음	⑧ 기타 ()

5. 2018년 한 해 동안(2018.1.1.~12.31) 활동하고 계신 예술분야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재능기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지난 1년간은 없으나, 과거에 한 경험은 있음	③ 없음

6. 귀하는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는 2018년 한 해 동안(2018.1.1.~12.31)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7-1로	② 아니오 ☞ 8로
<div>7-1. 귀하는 주로 어느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만 선택)</div> <div>※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 제외</div> <div> <div>① 학교</div> <div>② 평생학습기관</div> <div>③ 공공문화향유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div> <div>④ 청소년·복지 기관</div> <div>⑤ 문화원, 문화의 집</div> <div>⑥ 유관기관(시청자 미디어센터 등)</div> <div>⑦ 기타()</div> </div>	

8. 귀하는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작업실)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개인용 연습실이나 음악 스튜디오 등은 포함하되, 소속 단체나 회사의 연습실은 제외	
<div>① 있음(거주공간에 별도공간) ☞ 8-1로</div> <div>② 있음(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공간) ☞ 8-1로</div> <div>③ 없음 ☞ 9로</div>	
<div>8-1. 개인 창작공간의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div> <div> <div>① 자가</div> <div>② 임대-전세</div> <div>③ 임대 월세</div> <div>④ 무상임대 [제공자(기관)]</div> </div>	
<div>8-2. 개인 창작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div> <div>◆ 대략 () 평 또는 ()㎡</div>	

II. 생활·복지

9.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혼자 (1인가구)	② 독립된 가정 (본인+배우자/자녀)
③ 부모와 생활 (본인+부모)	④ 동료와 생활 (본인+동료)
⑤ 기타 ()	

10. 귀하는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③ 작업실에 부속된 방
⑤ 일정한 거처 없음	②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
④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⑥ 기타 ()

1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임대 전세	③ 임대 월세	④ 기타 ()

12. 귀하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⑦ 500~600만원 미만	⑧ 600~700 만원 미만	⑨ 700~800만원 미만
⑩ 800만원 이상		

13.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동거인과 합산 기준)		
①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⑦ 500~600만원 미만	⑧ 600~700 만원 미만	⑨ 700~800만원 미만
⑩ 800만원 이상		

14. 귀하의 월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은 얼마입니까?

※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 제외

① 없음

② 30% 미만

③ 30% 이상~50% 미만

④ 50% 이상~70% 미만

⑤ 70% 이상~100% 미만

⑥ 100%

15. 2018년 한 해 동안(2018.1.1.~12.31)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① 작품판매료

② 원고료

③ 창작료(전시참여비, 출연료, 작곡비, 연출료, 기획비 등)

④ 고정 급여

⑤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수입(인세, 로열티 포함)

⑥ 보조금 및 지원금

⑦ 기타 ()

16. 귀하의 수입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 충분
1) 예술 창작 활동 측면	①	②	③	④	⑤
2) 생계 및 생활 (경제) 측면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의 수입이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할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로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①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②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 일을 통한 수입

③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해 수입

④ 부채에 의존(은행, 친구, 동료 등)

⑤ 기타 ()

18. 귀하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① 있다 18-1로

② 없다 19로

18-1. 귀하의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의 부채

② 교육비(본인)

③ 창업/사업비

④ 주거비

⑤ 의료비

⑥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⑦ 차량 구입비

⑧ 육아/자녀교육비

⑨ 기타()

24. 귀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십니까?	
① 중증 장애 24-1로	② 경증 장애 24-1로 ③ 없음 25로

24-1. 귀하가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2순위 구분 선택)	
<div> <div>① 장애 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div> <div>②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div> <div>③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div> <div>④ 장애 문화예술인 이동편의 강화</div> <div>⑤ 장애 문화예술인 연습 공간과 창작 공간의 확보</div> <div>⑥ 장애 문화예술인 공공쿼터제 도입</div> <div>※ 공공쿼터제: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장애 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의무화 하는 제도)</div> <div>⑦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비 지원</div> </div>	
1순위 ()	2순위 ()

24-2. 장애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지원과 정책은 무엇 입니까? (1, 2순위 구분 선택)	
<div> <div>①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div> <div>② 전문 예술인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div> <div>③ 작품 활동 공간/시설 확충</div> <div>④ 장애 문화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div> <div>⑤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div> <div>⑥ 장애 문화예술인(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div> <div>⑦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div> <div>⑧ 문화예술활동 관련 편의 시설 및 인력 제공</div> </div>	
1순위 ()	2순위 ()

Ⅲ. 정서·건강

25.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1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1~2일간)	종종 있었다 (3~4일간)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1)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6.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① 일자리	② 자녀교육	③ 건강
④ 주거비	⑤ 노후생활	⑥ 부채상환
⑦ 부모부양	⑧ 자녀보육(양육)	⑨ 예술활동 어려움
⑩ 기타()		

27.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① 행정 및 서류처리 등의 업무량 과다	②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③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	④ 감정노동 스트레스
⑤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	⑥ 업무상 재해 위험
⑦ 성, 지역, 학력, 장애 등에 따른 차별대우	⑧ 대인관계의 어려움
⑨ 일·가정양립문제(자녀 보육 및 교육, 가사 등)	⑩ 조직문화 적응의 어려움
⑪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⑫ 역량개발의 기회부족
⑬ 기타 ()	

28.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예술가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9.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좋다

② 약간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양호하다

⑤ 매우 양호하다

30.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없음

② 1개 질환 있음

③ 2개 질환 이상 있음

31.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건강 악화로 인하여 작업 활동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33으로

② 없음 34로

33.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진료비 부담스러워서

②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⑤ 치료해도 나을 것 가지 않아서

⑥ 거동이 불편해서

⑦ 기타()

34. 2018년 한 해 동안(2018.1.1. ~ 2018.12.31)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그리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IV. 예술노동과 고용형태

35.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예 (전업) ☞ 35-1로	② 아니오 (겸업) ☞ 35-2로
<div>35-1.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div> <div>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③ 프리랜서(일용직 포함) ④ 고용주 ⑤ 기타 (_____) </div>	
<div>35-2.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div> <div> ①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②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 ③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④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⑤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div>	

36.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①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	②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 직종


37.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은 귀하의 예술활동과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전혀안됨	별로안됨	보통	도움	매우도움
예술	①	②	③	④	⑤
생계	①	②	③	④	⑤

38. 2018년 한 해 동안(2018.1.1. ~ 2018.12.31) 예술활동의 '활동 기간', '보수', 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서면 계약에 한정함	
① 없음 ☞ 39로	② 있음 ☞ 40으로

39. 귀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계약 불필요 ② 계약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계약 안 함 ③ 계약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분위기상 계약 불가능 ④ 계약을 요구하지만 대표나 업체가 기피해 불가능 ⑤ 기타	

40. 2018년 한 해 동안(2018.1.1.~12.31) 체결한 전체 계약은 총 몇 건입니까? ※ 서면 계약에 한정함

총 () 건

40-1. 2018년 한 해 동안(2018.1.1.~12.31) 체결한 전체 계약 중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로

40-2. 귀하가 체결한 계약은 예술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항목	포함여부		
1)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 강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2) 기획업자가 금전이나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3)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4) 부당한 수익배분·대가 지급 강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5) 기타	① 있다 ()		

41. 문체부에서 개발하여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문체부 표준계약서란 예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서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4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알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43. 귀하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항목	포함 여부		
1) 적절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함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2) 상당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함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3) 예술창작비용을 현저히 불리하게 공제해서 받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4) 예술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 받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5)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당함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6) 비인격적이며 모독적인 처우를 받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7) 기타 부당한 대우 ()			

44. 귀하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
 ②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
 ③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다
 ④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한다
 ⑤ 기타 ()

45. 귀하는 국내 예술계가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발생 시 이를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 모르겠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보통이다 ⑤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 ⑥ 매우 잘 갖추고 있다

46. 귀하는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예술산업 · 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교육 · 훈련 · 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예술문화산업 · 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창작활동 지원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귀하는 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②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③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④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 · 상담 지원기구 운영
 ⑤ 기타 ()

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 신고 · 상담 지원”을 알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V. 예술정책 · 예술인복지정책

49. 귀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셨습니다.	
① 예 ☞ 50으로	② 아니오 ☞ 49-1로
<div>49-1.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div> <div> <div>①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div> <div>②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div> <div>③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div> <div>④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div> <div>⑤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div> <div>⑥ 기타 ()</div> </div>	

50. 귀하는 2018년 한 해 동안(2018.1.1. ~ 2018.12.31.)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표기(V)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지원 참여 경험 유무		
		신청하여 지원받음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신청 안함
창작 비용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①	②	③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①	②	③
창작 공간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①	②	③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①	②	③
문화 사업	공공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①	②	③
	민간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①	②	③
사회 복지	예술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①	②	③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①	②	③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①	②	③

51.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원제도를 몰라서	②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③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④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⑤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⑥ 기타 ()

52. 대전시의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예술정책 결정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9)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53.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서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가능)

- | | |
|---------------------------------|-----------------------|
| ①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조례와 제도 정비 | ②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
| ③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 | ④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 ⑤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⑥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
| ⑦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 ⑧ 예술진흥 관련 문화재단의 기능 확대 |
| ⑨ 기타() | |

54. 대전시에서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골라 기입해 주세요.

① 생활안정지원 (예: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② 직업역량강화 (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③ 예술환경개선 (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④ 사회보험료지원 (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⑤ 예술창작지원 (예: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⑥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예: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55. 다음은 현재 대전에서 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다음 기관들 중 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귀하가 이미 알고 있었던 곳이 있다면 모두 표기해주시시오.

① 대전문화재단	②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③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미디어재단)	④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⑦ 대전마케팅공사	⑧ 대전복지재단
⑨ 대전예술의전당	⑩ 대전시립미술관
⑪ 이응노미술관	⑫ 대전시립연정국악원
⑬ 기타()	

※ 예술인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점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장시간 응답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ID				
----	--	--	--	--

2019 대전 예비 예술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2019 대전 예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표본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대전시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사기간 : 2019년 9월 ~ 11월

※ 응답자 기본 사항 (면접원이 기록)			
응답자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면접일시	월	일	시
※ 응답자 기본 사항은 답례품(5,000원 상당 기프트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응답자 사전 기록 사항			
Q1.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③ 무응답		
Q2. 출생년도			
Q3. 출신고교 소재지	① 대전 ② 인접지역(공주, 금산, 계룡, 논산, 세종, 옥천) ③ 그 외 지역		
Q4. 거주지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⑥ 인접지역		
Q5. 전공분야	① 문학(출판) ② 평면(회화) ③ 공예 ④ 영상 ⑤ 서예 ⑥ 사진 ⑦ 입체·설치 ⑧ 음악 ⑨ 국악 ⑩ 무용 ⑪ 연극 ⑫ 연예(방송, 공연) ⑬ 대중음악 ⑭ 영화 ⑮ 건축 ⑯ 만화 ⑰ 디자인		
Q6. 월평균 가구소득	① 없음	② 200만원 미만	③ 200~400만원 미만
	④ 400~600만원 미만	⑤ 600~800만원 미만	⑥ 800만원 이상



5. 향후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 교과목들의 필요한 정도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명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예술경영 이론/개론	①	②	③	④	⑤
2) 공연, 전시 기획/제작	①	②	③	④	⑤
3) 축제 기획	①	②	③	④	⑤
4) 조직 운영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5) 마케팅/홍보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정책	①	②	③	④	⑤
7) 예술공간 경영	①	②	③	④	⑤
8) 재무, 회계	①	②	③	④	⑤
9) 실무 문서 작성	①	②	③	④	⑤
10) 인턴십(기획, 제작 등)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복수전공을 선택하셨습니까?

① 예 6-1로

② 아니오 7로

6-1. 복수전공을 선택했다면 해당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동일 장르/계열 (예술계열)

② 경상계열

③ 사회계열

④ 기타()

7. 귀하는 예술대학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 7-1로

②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해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7-2로

③ 대전 지역에 남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④ 잘 모르겠다

7-1.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부담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②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③ 전공 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④ 졸업 이후 진로가 불투명해서

⑤ 기타()

7-2. 졸업 후 대전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예술창작 인프라의 격차(시설, 프로그램 등)가 커 보여서

②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해 보여서

③ 예술적 성장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④ 경제적 처우가 다른 곳에 비해 낮아 보여서

⑤ 출신지나 고향이 달라 이질감이 느껴져서

⑥ 기타()

122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I. 생활·여가

8.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혼자 (1인가구)	② 독립된 가정 (본인+배우자/자녀)
③ 부모와 생활 (본인+부모)	④ 동료와 생활 (본인+동료)
⑤ 기타()	

9. 귀하는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②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
③ 작업실에 부속된 방	④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⑤ 일정한 거처 없음	⑥ 기타()

10.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임대 전세	③ 임대 월세	④ 기타()

11. 귀하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① 있다 ☞ 11-1번으로	② 없다 ☞ 12번으로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11-1. 귀하의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응답 가능)</p> <table> <tr> <td>① 학자금</td> <td>② 가족의 부채</td> <td>③ 예비 창업/사업비</td> </tr> <tr> <td>④ 주거비</td> <td>⑤ 의료비</td> <td>⑥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td> </tr> <tr> <td>⑦ 차량 구입비</td> <td>⑧ 교육/취업준비비(학자금 제외)</td> <td></td> </tr> <tr> <td>⑨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td> <td>⑩ 기타()</td> <td></td> </tr> </table> </div>		① 학자금	② 가족의 부채	③ 예비 창업/사업비	④ 주거비	⑤ 의료비	⑥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⑦ 차량 구입비	⑧ 교육/취업준비비(학자금 제외)		⑨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⑩ 기타()	
① 학자금	② 가족의 부채	③ 예비 창업/사업비											
④ 주거비	⑤ 의료비	⑥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⑦ 차량 구입비	⑧ 교육/취업준비비(학자금 제외)												
⑨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⑩ 기타()												

12. 귀하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2개 응답)																	
1순위 ()	2순위 ()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table> <tr> <td>① 식료품비/외식비</td> <td>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td> <td>③ 의류비/미용비</td> </tr> <tr> <td>④ 교통비/차량유지비</td> <td>⑤ 통신비</td> <td>⑥ 문화여가비</td> </tr> <tr> <td>⑦ 보건의료비</td> <td>⑧ 연료비(전기·가스 등)</td> <td>⑨ 경조사비</td> </tr> <tr> <td>⑩ 자기계발비(학원비 등)</td> <td>⑪ 교육비/취업준비비</td> <td>⑫ 부채상환비</td> </tr> <tr> <td>⑬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td> <td>⑭ 기타()</td> <td></td> </tr> </table> </div>			① 식료품비/외식비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③ 의류비/미용비	④ 교통비/차량유지비	⑤ 통신비	⑥ 문화여가비	⑦ 보건의료비	⑧ 연료비(전기·가스 등)	⑨ 경조사비	⑩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⑪ 교육비/취업준비비	⑫ 부채상환비	⑬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⑭ 기타()	
① 식료품비/외식비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③ 의류비/미용비															
④ 교통비/차량유지비	⑤ 통신비	⑥ 문화여가비															
⑦ 보건의료비	⑧ 연료비(전기·가스 등)	⑨ 경조사비															
⑩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⑪ 교육비/취업준비비	⑫ 부채상환비															
⑬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⑭ 기타()																

13. 귀하가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응답)	
1순위 ()	2순위 ()
①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②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등)
③ 스포츠 관람(야구, 배구 경기 관람 등)	④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등)
⑤ 관광 및 여행	⑥ 인터넷
⑦ TV시청	⑧ 게임
⑨ 쇼핑	⑩ 음주
⑪ 친구만남	⑫ 산책 및 걷기
⑬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 않음)	⑭ 기타()

14. 귀하가 조건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응답)	
1순위 ()	2순위 ()
①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②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등)
③ 스포츠 관람(야구, 배구 경기 관람 등)	④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등)
⑤ 관광 및 여행	⑥ 인터넷
⑦ TV시청	⑧ 게임
⑨ 쇼핑	⑩ 음주
⑪ 친구만남	⑫ 산책 및 걷기
⑬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 않음)	⑭ 기타()

Ⅲ. 건강·가치관

15.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1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1~2일간)	종종 있었다 (3~4일간)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1)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6.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좋다	② 약간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양호하다	⑤ 매우 양호하다	

17.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없음	② 1개 질환 있음	③ 2개 질환 이상 있음

18.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건강 악화로 인해 학업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응답)		
① 재산·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실현
④ 건강	⑤ 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대인 관계
⑩ 꿈·목표 의식	⑪ 사회분위기	⑫ 기타()

V. 예술정책 · 예술인복지정책

20. 귀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셨습니까?	
① 예 ☑ 21로	② 아니오 ☐ 20-1로
20-1.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②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③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④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⑤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⑥ 기타 ()

21. 귀하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 ②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 ③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다 ④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 ⑤ 기타 ()

22. 귀하는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예술산업 · 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교육 · 훈련 · 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예술문화산업 · 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창작활동 지원(비용과 공간, 발표기회 등)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알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24. 귀하는 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②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③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④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⑤ 기타()

25. 대전시의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예술정책 결정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9)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26.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서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가능)

①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조례와 제도 정비

②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③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

④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⑤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⑥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⑦ 기타()

<p>27. 대전시에서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골라 기입해 주세요.</p>											
<table border="1"> <tr> <td>① 생활안정지원 (예: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td> </tr> <tr> <td>② 직업역량강화 (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td> </tr> <tr> <td>③ 예술환경개선 (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td> </tr> <tr> <td>④ 사회보험료지원 (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td> </tr> <tr> <td>⑤ 예술창작지원 (예: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td> </tr> <tr> <td>⑥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예: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td> </tr> </table>						① 생활안정지원 (예: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② 직업역량강화 (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③ 예술환경개선 (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④ 사회보험료지원 (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⑤ 예술창작지원 (예: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⑥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예: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
① 생활안정지원 (예: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② 직업역량강화 (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③ 예술환경개선 (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④ 사회보험료지원 (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⑤ 예술창작지원 (예: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⑥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예: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3. 심층면접 질문지

1) 예술인 면접지

* 예술가로서의 안정성

Q1: 문화 예술계에서 또한,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경력단절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이 혹시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Q2: 예술 작업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관점을 들려주십시오.(예술 작업과 생계유지가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포함해서)

Q2_2: 전공 외 일자리를 계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예술활동 중의 부당대우

Q3: 예술계 내부에서 일할 때에 부당대우나 부득이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3_2: 해당 예술계가 타 분야들과 비교하여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_3: 그렇다면 작가로서의 안정성 문제에서 지금으로선 인맥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Q4: 예술계 내에서 계약서에 관련된 문제가 항상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우 불충분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빈번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체부에서는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술계 내부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문체부에서 배포한 표준계약서는 알고 계십니까?

*** 예술인 복지와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

Q5: 예술활동을 하면서 작업실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Q5_2: 작업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Q5_3: 시나 재단에서 준비하는 작업실 지원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크게 월세 지원과, 작업실 대여를 골자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작업실 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활동증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거나, 활동증명을 이미 하셨습니까?

Q7: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수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7_2: 대전문화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7_3: 대전 문화 재단에 대해 제언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Q8: 지방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특수성이 있습니까?

Q8_2: 대전에서 계속 활동하실 예정입니까?(계속 활동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까지)

*** 기타**

Q9: 예술가로서의 삶을 언제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Q10: 내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Q11: 예술가로서 예술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2: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미술에 관해서든, 인생에 관해서든 말씀해 주십시오.

2) 예비예술인 면접지

* 예술가로서의 활동 계획과 안정성

Q0: 졸업 이후 예술가로서의 삶을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Q1: 대전에서 활동을 지속할 생각이 있습니까?(활동을 지속할 생각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까지)

Q2: 예술 작업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관점을 들려주십시오.(예술 작업과 생계유지가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한 이유까지)

Q3: 예술계 내에서 계약서 문제가 항상 이야기되어왔습니다. 이를테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우 불충분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빈번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아예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졸업 이후 예술활동을 전개해나가려면 이와 같은 계약서문제와 종종 마주치게 될 텐데,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술인 복지와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

Q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활동증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거나, 활동증명을 이미 하셨습니까?

Q5: 근래에는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화 재단 및 기관, 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Q6: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에 기대하거나 제언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예술 대학 교육 과정

Q7: 예술 대학 커리큘럼의 학업 만족도.

Q8: 예술 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Q8_2: 교외 현장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교육 과정에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Q9: 교내에서 선후배간 혹은 교수들로부터의 부당대우를 겪으신 적 있으신지. 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타

Q10: 내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Q11: 예술가로서 예술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2: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예술에 관해서든, 인생에 관해서든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조사 수행진

연구책임 : 한상헌(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윤설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찬우(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설문 조사원 : 안준형, 송상우, 유채하, 김진하, 안주을
